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과 중국 언론 보도에 나타난 양국 이미지 비교

-한반도 사드 배치 전후 한중 주요 일간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朱 瑾

2019年 2月

한국과 중국 언론 보도에 나타난 양국 이미지 비교

-한반도 사드 배치 전후 한중 주요 일간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고 영 철

朱 瑾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朱 瑾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Comparative Study of The National Images of
Korean and
Chinese in Korean and Chinese Newspapers: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Daily
Newspapers
Before and After THAAD Arrangement

ZHU JIN

(Supervised by professor Yong-Cheol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19.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이미지의 개념 정의.....	4
제 2 절 이미지 형성과정.....	6
제 3 절 국가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	10
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7
제 1 절 연구문제	17
제 2 절 연구방법	18
1) 내용 분석.....	18
2) 분석 대상.....	19
3) 자료 표집 방법.....	21
4) 분석 절차.....	22
(1) 표본의 코딩.....	22
5) 코더들 간의 신뢰성의 측정.....	27
제 4 장 연구결과	28
제 1 절 일반적인 분석결과.....	28
1) 기사 보도량.....	28
2) 보도지면.....	29
(1) 각 나라별 지면	29
(2) 시기별 지면.....	31
3) 정보원 유형.....	34

(1) 각 나라별 정보원 유형.....	34
(2) 시기별 정보원 유형.....	37
4) 기사 취재원 유형	40
(1) 각 나라별 취재원 유형	40
(2) 시기별 취재원 유형.....	41
5) 뉴스출처.....	42
(1) 각 나라별 뉴스출처.....	42
(2) 시기별 뉴스출처.....	43
6) 인물사진.....	45
(1) 나라별 인물사진.....	45
7) 인물 사진 성별	46
(1) 각 나라별 사진성별.....	46
8) 사진 출처	48
(1) 각 나라별 사진 출처.....	48
제 2 절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49
1) 연구문제 1)과 관련(기사 유형)	49
(1)각 나라별 기사 유형	49
(2) 시기별 기사 유형	50
2) 연구문제 2)와 관련(기사 주제).....	53
(1) 각 나라별 기사 주제.....	53
(2) 시기별 기사 주제	55
3) <연구 문제 3>과 관련 (보도 태도).....	59
1, 보도 태도.....	59
(1) 각 나라별 보도 태도.....	59
(2) 시기별 보도 태도.....	60
2, 기사 주제별 보도태도	62
(1) 각 나라별 기사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62
(2)시기별 기사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66

제 5 장 요약 및 결론	77
참고문헌.....	86
Abstract	93
부록:	96

그림 차례

<그림 1 > X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정 모델	9
---------------------------------	---

표 차례

<표 1 > 신문사별 지면 구성.....	21
<표 2 > 분석항목 및 유목	24
<표 3 > 각 언론사별 보도량	29
<표 4 > 각 나라별 보도량	29
<표 5 > 각 나라 언론사별 지면	31
<표 6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지면.....	33
<표 7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지.....	34
<표 8 > 각 나라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36
<표 9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정보원 유형	38
<표 10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39
<표 11 >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취재원	40
<표 12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국가별 기사 취재원 유형	41

<표 13>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취재원 유형	42
<표 14> 각 나라 언론사별 뉴스 출처	43
<표 15>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뉴스 출처 시기별 취재원 유형.....	44
<표 16> 시기에 따른 언론사별 뉴스 출처	45
<표17> 각 나라 언론사별 인물사진.....	46
<표18> 각 나라 언론사별 인물사진성별	47
<표 19> 나라별 사진 출처	49
<표 20>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유형	50
< 표 21>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기사유형.....	52
<표 22>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유형	52
<표 23>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주제 유형	54
<표 24>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기사주제	57
<표25>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주제.....	58
<표 26> 각 나라 언론사별 보도 태도	60
<표 27>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보도 태도	61
<표28>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보도 태도.....	61
<표 29> 각 나라별로 주제에 따라서 보도 태도	64
<표 30> 한국 언론사별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65
<표 31> 중국 언론사별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66
<표 32>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한국의 보도 태도.....	70
<표 33>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중국의 보도 태도.....	71
<표 34>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두 나라의 보도 태도.....	72
<표35>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한겨레> 보도 태도.....	73
<표36>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조선일보> 보도 태도	74
<표37>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인민일보> 보도 태도.....	75
<표38>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광명일보> 보도 태도.....	7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보울딩(Boulding, 1956)은 이미지란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 아이디어 및 인상 등이 합해진 것으로써 감각적인 경험이 뇌에 새겨진 표상 또는 지각, 특히 연상을 통해 느껴진 감각적 인상이라고 한다. 그 특정 대상에 대해 형성될 수 있는 이미지는 입소문, 직접 경험, 매스미디어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우선적으로 그 국가에서 일했던 경험이나 휴가를 보냈던 경험이 그 국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갖게 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간접경험이 특정 국가의 이미지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영철·권영후·장승현, 2015).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안정, 민주화 정도, 경제발전 수준, 범죄 상황, 공공질서, 역사와 전통, 문화 예술, 국민성, 교육수준, 자연경관과 기후, 국가 호감도, 외국과의 교류정도 등을 들 수 있다(김용성, 1999). 글로벌화로 전 세계의 각 국가와 지역이 다양한 통로와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런 관계로 한 국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특정 국가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 가운데는 좋고 올바른 내용도 있고, 나쁘고 잘못된 내용도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국가 이미지는 해외여행, 국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 외교관계 등 많은 국가 간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각국의 언론 수용자에게 특정 국가, 지역, 기업 및 상품 등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도

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갖게 된 국가 이미지는 좋게 형성되면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될 수 있는데 나쁘게 형성되면 기업의 상품 이미지, 국민 등에 관한 이미지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지속하고 강화시키는 것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각 국가는 자기 나라의 모습이 외국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또한 자기 나라의 모습이 다른 나라 언론에 좋게 보도되게 하기 위해 각국마다 다양한 방법을 각종 선전,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과연 국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한국에 사드 배치 전후 한국과 중국 언론에 비친 이미지가 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양국 수교 행정체계가 수립된 이후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기 이전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 양국 간의 교류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관광협회 관광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도의 경우 598만 4천 명 정도, 2016년에는 806만 8천 명 정도, 2017년 225만 3천 명 정도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이전인 2016년 7월에 방한(訪韓) 중국 관광객 수는 917,519명인데 사드 배치 1년 후인 2017년 7월에 방한 중국 관광객 수는 281,26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되어 전년 동월 대비 69.3%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언론에 투영된 두 나라의 모습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국의 신문 보도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한국 언론이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으로 구별하는데 중국에서 중국공산당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서는 구별이 없다. 그래서 한국 대표적인 진보와 보수 신문을 선택하고 중국에서는 발행량 많은 언론사를 2개를 선택하여 양국 언론에 나타난 양쪽 국가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중국 관련 뉴

스 와 중국 언론인 <인민일보>, <광명일보>에 보도된 한국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두 나라의 신문에 나타난 양국의 국가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서론과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그리고 본 연구가 갖는 기대 효과를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외국 언론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이미지 개념을 설명했다. 제 2 절에서는 이미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3절은 언론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서는 제2장에서 진행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을 모색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내용분석방법을 선택했고 분석대상, 분석 시기, 자료 표집, 분석 절차에 대해서도 정의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는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의 한 중 기사 내용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을 도출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미지의 개념 정의

‘이미지(image)’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명료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지는 라틴어 ‘이마고(imago)’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방하다’란 뜻을 가진 라틴어 ‘이미타리(imitari)’에서 파생한 것이다(이도훈, 2007; 최윤희, 1996).

현대 사회는 이미지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학자에 따라서 정의도 많다.

김우창(1999)도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연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란 단어는 라틴어의 imago에서 유래된 말로 ‘모방하다’라는 동사형인 라틴어 imitari에 유래되고 나서 어떤 사물에 대하여 재현하는 유사성을 띠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즉, 일반적으로 김기도(1987)는 우리는 어떤 대상에 경험하고 머릿속에 상을 형성될 수 있다. 그 상에 의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써 행동변화와 동기가 된다(Severin&Tankard, 1997). 김정탁(2002)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머릿속에 형성된 대상에 대한 이미지에 의하고 그리고 이미지에 따라 우리 행동을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Sartre)는 이미지가 상상력의 소산라고 생각하고, 코틀러(Kotler)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집단까지 어떤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일련의 신념이 이미지라고 하고 있다. 다울링(Dawling, 1986)은 이미지는 의미들의 세트다. 사람들은 의미 세트에 의해 대상을 알고, 묘사하고, 기억하고 관련짓는다.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믿음, 생각, 느낌, 인상의 상호작용에서 결과한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월터 리프먼(Lippmann, 1921)은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말했다. 볼 수 없고 들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세계를 머릿속에서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이 세계를 자신의 스스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민(2009)은 이미지와 행동의 관계는 인간이 행동을 요

구하고 외부환경에 관한 이미지인 의사환경을 근거하고 반응하는 행동과의 관계를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윌터 리프먼(Lippmann, 1921)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을(pictures in our heads)은 사실의 세계에 가깝다기보다는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허상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행으로 한국에 한 번도 못 가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한국 드라마에서 남배우들이 다리가 매우 길게 나와서 한국 남자들이 다 다리가 긴다고 인식했다. 그 인식이 잘 못되지만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근거하여서 머릿속에서 상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발전에 따라서 세상에서 더 새로운 것을 생기고 있고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전부 경험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서 듣고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고 세계를 관한 정보를 받고 세계에 관한 이미지를 형성된다. 하지만 받은 정보는 사실의 세계와 차이가 있다. 의사환경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의사환경에 의하여 반응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유재응(2008)도 이미지를 논술하고 인간이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이 이미지에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행동적 측면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보우딩(Boulding, 1956)은 이미지란 “사람들이 특정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 아이디어 및 인상 등이 합해진 것으로써 감각적인 경험이 뇌에 개겨진 표상 또는 지각, 특히 연상을 통해 느껴진 감각적 인상”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주는 자극 때문에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아이디어, 가치관 등을 융합하고 나는 태도로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중국 사람들이 배치를 싫어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한국 국가이미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차배근(1986)은 태도는 대체로 인지적 요소, 정서적/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등으로 3가지를 나눠서 했다. 인지적 요소는 정보를 통해 형성된 대상의 속성들에 대한 이해이다. 예를 들어, “맞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정서적/감정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다. 예를 들어, “좋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해 있는 태도를 갖고 의지에 관련된 태도이다. 예를 들

어, “물이 건강에 좋아서 물을 마시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레이(Ray, 1973)은 인지적 태도가 있고 나서 감정적 태도가 나고 행동태도를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미지란 대상이 우리에게 자극해서 이미지를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더 주동적으로 신념, 태도 등을 갖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처럼 의사환경에 의하여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상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언론에 나타난 양국 국가이미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제 2 절 이미지 형성과정

그런다면 이미지는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형성되고 바꾸고 변하는 것인가? 이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이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Moffitt(1994)는 개인의 국가이미지 형성통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개인이 조직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매스미디어 내용을 칭하는 텍스트적 관계로서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내용을 접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개인적 경험으로 개인별로 국가를 방문하거나, 상품을 사용하거나, 국민을 접촉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사람들이 모든 사회적 현실을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 경제, 정치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특정 국가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느냐 것은 중요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로는 미디어다. 자국의 미디어 내에서 타국의 뉴스의 양이 증가하는 반면에 주로 사건사고, 위기, 재난 등에 초점이 맞춰 외국의 소식을 뉴스에서 다루고 있고 나라에 대한 부정확성과 불충분 증가되고 있는데(Goodman,1999; Wilhoit & Weaver, 1983), 이처럼 국가이미지 형성의 주요 게이트키퍼인 언론이 왜곡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잘못된 정보원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왜곡되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신호창, 1999:

2003: Chang, et al., 2009).

신호창(2011)는 국가이미지에 적용하여 관계적 통로는 구전과 의견 지도자 등을 매개로 한 2단계 혹은 다단계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며, 영화,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전달되는 대중문화의 메시지와 텍스트적 통로 한 접촉은 잡지, 신문, 라디오 등에 의하여 전달되는 뉴스가 해당한다. 이 경우 전달되는 국가이미지가 사실이나 현실보다 과장, 축소, 왜곡,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

Smith(1973)는 국가이미지를 직접적인 경험을 해서 얻은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도 많다. 인지시스템의 주요 소통기제가 매스미디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많은 학자들은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매스미디어 채널을 가장 비중이 큰 이미지 형성 경로로 보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사람들 간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다양한 이미지의 전달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불딩(1961)은 대상에 대해 이미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시 정보로 될 수 있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의 형성된 이미지를 현재 이미지는 수용하고 형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지가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제한효과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관심범위와 기억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각 상황을 특정태도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선택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차배근,1986). 즉, 사람들이 외부환경에서 모든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들이 영향을 본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선택하는 심리적 성향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없는 정보를 회피하고 본인이 신념이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왜곡, 오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지가 현실과 다르고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편견적인 특성도 있고 100% 사실이 아니다.

이미지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것이나 기업이 아니면 제품/브랜드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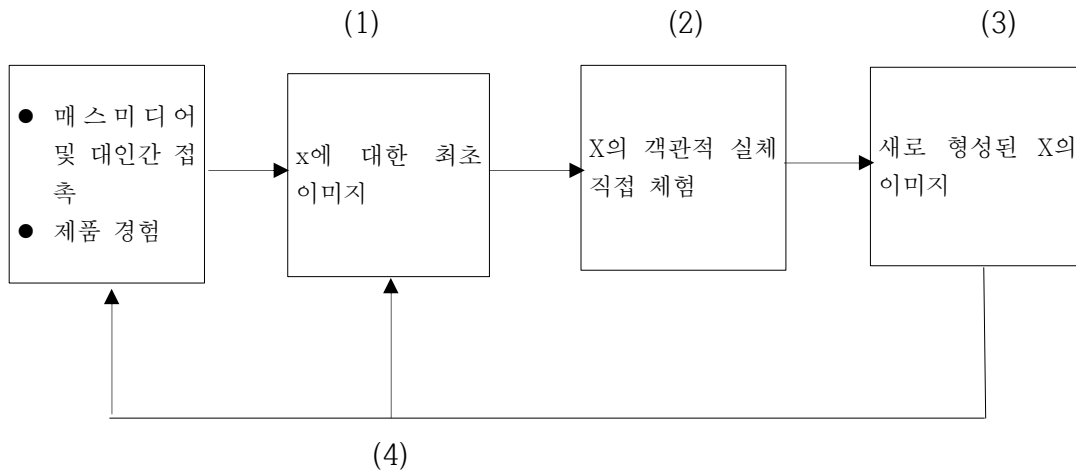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매스 미디어의 정보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우리 일단 머릿속에 이미 있는 이미지에 의하여 결합하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된다. 아니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있는 이미지를 결합하고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된다.

우리 일반 생활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정보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와 추가로 수용된 정보와 경험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고영철이 제시한 이미지 형성과정 모델(1994)에 따르면 이미지 형성과정은 다음<그림1>와 같다. 특정 국가/지역 혹은 기업 이미지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 X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정 모델



고영철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X(한국, 중국, 각종 상품 등등)에 최초의 이미지는 (1)은 X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사용 경험과 대인 간 접촉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최초의 이미지는 X에서 생산된 각종 생산품 사용경험과 X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문이나 사적 견해 또는 매스 미디어의 케이트키핑 과정을 거쳐 보도된 극적인 내용/정보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객관적 실체에 아주 가까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 (2)의 소비자 혹은 여행자들은 X에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이미지의 소재들과 접촉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소비하면서, X에 대한 지존 태도를 보강하거나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X에 대한 이미지 (3)가 재형성된다. (3)의 이미지는 (2)의 재형성 과정을 거쳐서 (1)의 부분적 이미지가 수정되고 보완되어 형성된 이미지이다. 새로 형성된 총체적 이미지 (3)이 다시 (1)의 이미지가 되며, (2)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순환과정(4)을 밟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정보와 경험에 의해 계속 재형성되고 수정,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미지의 형성이 주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신문의 보도내용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여기서 분석한 내용은 양국이 상대방 국가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 3 절 국가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

앞에서 이미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국가 이미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에 관한 연구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강현두, 주어행이, 허진(1998)은 1949년~1996년까지 47년 동안에 중국 <인민일보>, <광명일보>, <문화보>에 보도된 남북한 이미지 비교분석 연구했다. 세 신문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개월 간격으로 표본 추출 하였다. 추출된 신문기사의 외형적 특징, 내용적 특징, 그리고 보도 방향을 내용 분석하였다. 외형적 특징은 게재된 지면, 기사의 크기, 기사의 위치, 기사유형, 그리고 정보원을 포함했다. 내용적 특징은 기사의 주제와 보도 대상 및 관련국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국내정치, 경제/산업, 외교, 체육, 재난/사건, 과학기술/의료, 범죄/재판, 국방/군사, 문화 예술, 종교, 학술/교육, 인간적 흥미, 환경/공해/보건, 관광, 그리고 기타로 분류했다. 보도방향은 각각의 기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후에 대상국가에 대한 보도입장이 긍정적인가, 중립적인가, 부정적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었다.

분석결과는 중국 언론에 그 동안 보도된 북한에 대한 기사 건수가 남한보다 더 많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동안 중한 수교 때문에 보도 시가의 건수도 변화가 나왔다. 각 언론사가 지면의 변화가 계속 있어서 비교가 어려워서 제1면에 있는 기사만 분석했는데 제1면의 보도 기사 건수는 북한이 남한이나 남북한 관련기사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에는 변화가 나왔다. 남한에 관한 제1면 기사 건수는 좀 증가했다. 기사의 유형별 살펴보면, 사진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북한에 관한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남북한 모두에 관련된 것, 그리고 남한에 관한 외신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원에서는 개혁개방 후에 자체취재 기사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남북한에 대한 자체취재 기사가 증가하고 남한에 대한 의신 기사가 다 많이 되었다. 주제를 살펴보면, 남북한의 외교관계와 국방, 군사 그리고 양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도태도는 남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왔다.

결과는 중국의 주요 신문들에서 북한 관련기사는 남한 관련기사보다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우월한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화 되었다.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 지난 20년간의 변화가 중국 국민들의 일상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의진(1993)은 우리나라 2개 일간지에 나타난 미국, 소련, 일본, 중국 관계에 대한 뉴스를 연구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88년, 그 전의 86년, 그 후의 90년 시기로 나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외형적, 내용적, 보도방향으로 3가지를 나눠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86,88,90년 전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에 비하여 중국과 소련이보다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소련에 관한 기사의 양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교, 국방, 국내정치, 스포츠, 사회일반, 산업경제 주제가 더 많고 일본의 경우, 국내정치, 외교, 중국의 경우, 국내정치, 사회일반, 소련의 경우, 국내정치, 외교, 산업경제, 국방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한국 언론은 중국과 소련을 일본과 미국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들에 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일본에 대한 보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되었다.

유세경(1998)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해외언론 보도경향과 국가이미지를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사태 관련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보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총체적 이미지를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언론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위기 관련 보도에 있어서 어떠한 사건, 인물, 시각이 선택되었으며, 경제위기 관련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 관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 뉴스보도 경향과 보도에 나타난 우리나라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The New Times 와 Wall Street Journal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기사는 Proquest와 Dow Jones Interactive on-line service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보도기사의 내용은 기사의 양, 기사의 형식, 기사의 정보원, 기사의 방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되었고, 경제위기관련 보

도의 시각과 정보원에 대한 보도 경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상황, 뉴스보도 정보원에 대한 지칭용어와 헤드라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사태에 관련된 미국 언론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기사의 양이나 보도형식에 있어 중. 장문의 기사와 심층보도를 요하는 해설기사가 많아 한국의 경제위기상황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 있어 긍정적인 시각의 기사보도는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부정적인 시각의 기사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보도의 정보원이 누구인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정부, 기업, 미국정부/기업이 전체 뉴스정보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 노동자, 노동단체가 뉴스 정보원이 된 경우는 매우 적어 한국의 경제위기상황에 관련된 뉴스보도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의 발표, 정책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병종(2010)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뉴욕타임스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변화 추이를 연구했다. 시기는 5년 단위로 네 기간을 선정하고 1기는 1994년 -1995년 3월까지, 2시기는 1999년 4월부터 2000년3월까지, 3기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4시기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5년 주기의 이 네 기간은 한국 4개의 다른 정부가 있고 정책도 다르고 각 정부가 1년 후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고려되었다. 각 시기별로 문화, 가치, 삶 등 이러한 소프트 파워적 요소들은 한 나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주제로 한 한국 관련 기사 역시 보다 긍정적인 논조를 띠게 된다. 이러한 점이 국제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4년의 기간을 선정하여 뉴욕 타임스의 한국 관련 기사의 주제, 주체, 형태, 태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뉴욕 타임스의 한국 관련 기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국방, 정치, 경제 등 하드 파워적 주제보다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 철학, 교육, 생활 등 소프트 파워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논조 역시 점차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또한 기사의 주체도 정치 단체나 기업 집단 등에서 점차 한국인 개인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민(2009)은 <인민일보>와 <북경청년보> 중심으로 중국 언론에 나타난 한국

의 국가이미지 연구했다. 내용분석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2002년은 한중 수교 10년이 되고 한국 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사의 특징(기사의 보도 량, 기사의 형식, 기사의 정보원, 기사의 주제) 기사의 톤은(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어떤 것인지 신문사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했다.

분석 결과는 기사 보도양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중국 신문에 보도된 한국 관련 기사는 년도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중국 언론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가 비교적 많다고 알 수 하였다. 기사의 형식은 두 신문은 모두 스트레이트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 심층보도, 시사평론, 기타, 사진보도, 인터뷰, 사설의 순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인민일보>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북경청년보>기사보다 더 많고 <북경청년보>의 심층보도, 사진을 차지하는 량이 <인민일보>보다 더 많다. 전체적으로 자사가 비중이 더 많다고 알 수 있다.<인민일보>의 기사출처, 자사, 신화사, 외부투고, 기타, 외국통신사, 다른 신문의 순으로 나오고 <북경청년보>는 자사, 신화사, 기타, 다른 신문, 외국통신사, 외부투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에 대해 한국 스포츠에 대한 보도가 많다. 다음에 외교, 경제, 정치, 문화, 국방, 사건, 기타 등의 순으로 보도되었다. 한국 관련 관광과 종교에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스포츠가 비중이 많고 <북경청년보>는 외교 면과 경제면이 더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인민일보>는 국방, 문화, 정치, 사건, 기타 순으로 나오고 <북경청년보>는 문화, 사건과 기타, 정치, 국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 태도는 중국 신문에 나타난 한국 관련기사는 긍정적으로 보도되었다. <인민일보>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하였다. <북경청년보>는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다. 주제별 기사의 톤은 외교, 경제, 문화, 환경, 과학기술, 교육, 오락 등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하였다. 그리고 정치, 국방, 관광, 스포츠 및 기타 내용에 관련하여서는 중립적인 것을 알 수 하였다. 종교 관련 내용은 2건이지만 각 긍정적인 보도와 중립적인 것을 알 수 하였다. 환경에 대한 보도는 부정적인 보도가 없었다.

卢建雯(2011)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보도된 중국 국가 이미지를 연구했다. 분석 유목은 신문지면(종합/정치, 사회, 지방뉴스, 국제, 문화, 여론/사설, 경제, 기타) 주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보도의 의도 방향(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3가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5년(2001-2005)의 보도 총량은 뒤 5년(2006년-2010년)의 보도 총량보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면은 경제면과 국제면의 비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종합/정치 및 여론/사설이다.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은지면은 사회, 지방뉴스, 스포츠, 문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는 경제에 대한 보도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도의 의도방향은 중립적인 태도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중립적인 비중과 부정적인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문 지면에 따라서 보도의 의도방향은 사회지면은 부정적인 편이다. 경제지면은 긍정적인 보도가 더 많았다. 국제면의 태도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하였다. 주제에 따라서 정치는 부정적인 건수가 더 많고 경제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고 사회와 문화는 부정적인 건수와 긍정적인 건수는 비슷하다.

한국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는 이병종(2012)의 “국제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 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관련이 깊은 4개 주요국 즉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떤 차별을 분석 하였다. 이 4개국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국가 언론사가 보도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차이를 보일 것을 위해 4개 국가마다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관련 보도가 국가별로 주제, 주제, 정보원, 논조 및 서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주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사회 분야를 많이 보도하고 영국과 일본은 경제 산업 분야를 많이 보도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군사 외교 분야도 많이 보도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구미 국가들보다 한국의 문화 분야에 대해 더 많이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 사회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국은 사회 현상이 보인 구조를 기사의 주체로 사용하는 것이 많고 경제 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

는 영국과 일본은 기업이 포함된 단체를 주체로 많이 사용했다. 미국, 영국, 일본 언론은 한국의 정부 관료나 정치인을 정보원으로 많이 사용한 반면 중국은 연구소나 단체를 많이 인용했다. 논조에서 영국은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고 일본과 중국은 그 보다는 긍정적 이었다. 그 중에서 일본이 가장 긍정적 이었고 영국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남일우(2015)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독일의 대표적 슈피겔이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한국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슈피겔은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느 지면에, 한국관련 주제들, 전달되는 한국의 국가이미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따라 차이점을 연구했다. 기사들을 내용분석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슈피겔 홈페이지에 있는 아카이브에서 제목과 내용에 한국, 코리아, 서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사를 모두 발췌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 한국에 대한 보도내용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사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한 기사지만 한국에 대한 보도내용이 본문의 1/2이 넘는 경우에는 한국 관련 기사로 포함시켰다. 남북한이 동시에 보도된 기사에서는 남한관련 보도내용이 본문의 2/3가 넘으면 한국관련 기사로 취급하였다.

연구 결과는 슈피겔은 한국에 관한 보도 기사 건수가 많지 않아서 한국에 대해 아주 적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 수 하였다. 김대중 정부보다는 노무현 정부에 기사 량이 좀 많았다. 지면을 보면 국제면의 비중이 제일 많고 기사주제는 외교/안보와 경제의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기술, 문화/예술/스포츠, 국내정치, 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사건들을 주로 보도하거나 혹은 주로 부정적인 관점을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슈피겔에 보도된 한국관련 기사들은 주로 국제 면에 보도되었으며, 이어서 경제면과 과학/기술면이 그 뒤를 따랐다. 슈피겔이 한국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주로 남북관계가 포함된 외교/안보와 경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

하여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의 주제들도 적지 않게 보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슈피겔은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많이 전달하고 있음이 이번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다.

본 연구가 잡지 1개만을 대상으로 많지 않은 기사를 분석하였으며, 남북관계가 호의적이었던 두 정부시기를 분석기간으로 삼음으로써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 슈피겔이 이와 같은 보도경향을 계속 지속한다면 독일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더 빨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조박(2016)은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했다. 사드 관련 보도의 뉴스 프레임, 정보원, 의견기사의 보도태도 3가지를 나눠서 신문사별로 시기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2 언론사를 분석대상으로 사드를 처음 제안한 이후부터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날까지,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후부터 한국정주가 사드 배치장소를 결정하기 전까지, 한국정주가 사드 배치장소를 결정한 후 2016년 9월 30일까지 3가지로 진행했다.

신문사별과 시기별로 분석 결과는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해설기사, 사설, 칼럼, 기획/연재, 인터뷰, 특자 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스트레이트, 해설, 사설, 칼럼, 기획, 연재, 인터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 프레임은 <조선일보>는 한미동맹 강화 관련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사드 사양”프레임을 많이 보도하였다. <한겨레>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신냉전” 관련 프레임을 많이 보도하였다. 시기에 따라서 각 언론사별로 프레임의 상황도 논술하였다. 정보원은 1시기에 중국과 관련 정보원은 <조선일보> 더 많았다. 2시기는 북한이 더 많이 나오고 미국 정보원도 많이 나왔다. 3시기는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한국 정보원이 더 많이 나왔다.<한겨레>는 시민단체와 일반인을 많이 활용하였고, <조선일보>는 익명 정보원을 더 많이 나왔다. 의견기사의 보도태도는 1시기에는 <조선일보>에는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한겨레>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다. 2시기는 <조선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중립적인 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각의 연구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특정 국가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기사의 량, 기사 유형, 기사 보도지면, 사진, 정보원 그리고 보도태도(논조)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한국과 중국 언론에 투영된 양국의 이미지가 사드 배치 전 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사개제 지면, 기사의 유형, 정보원, 기사 주제, 기사의 보도(논조)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매스 미디어의 보도는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 대해 갖는 이미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주요 언론이 다른 국가를 어떻게 보도했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에 수교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에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전후로 한국과 중국의 주요 언론이 상대 국가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 연구문제1: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전후 한·중 언론의 기사 형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전후 한·중 언론의 기사 주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전후 한·중 언론보도의 보도태도는 어떠한가?

제 2 절 연구방법

1) 내용 분석

본 연구는 한중 언론에 나타난 한중 국가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선택하였다.

내용분석은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 내용 분석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커스(Barcus, 1959)는 내용분석이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라고 했다. 베렐슨 (Berelson, 1952)은 내용 분석이란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버드, 톱 및 도노휴(Budd, Thorp and Donohew, 1967)의 관점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린저(Kerlinger, 1973)는 내용분석이란 관찰방법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설문지 또는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된 커뮤니케이션내용을 분석해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스톤(Stone, 1964)은 내용분석이란 메시지의 동기, 태도, 주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월리저 와 위너(Walizer & Wienir, 1978)도 내용분석이란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크리프도프(Krippendorff, 1980)의 관점에 의하면 내용분석은 데이터의 상황에 대한 반복 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얻을 때 중요한 연구기법이라고 했다.

앞에 제시한 내용분석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내용분석방법은 생산된 메시지의 동기, 주제, 태도 등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단순한 내용분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

여기서 객관성이란 한 조사자의 설정된 원칙과 체계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같은 재료를 분석해도 똑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체계성란 이미 설치한 규칙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체계성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성이란 이론적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차배근, 1980).

그리고 내용분석방법이란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겉으로 표현된 메시지를 분석해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였느냐하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한다. 종합적인 내용분석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메시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변인들을 추리하는 것이다(Karin Doving, 1954).

2)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일간지< 조선일보>와 <한겨레>,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종합일간지<인민일보>와 <광명일보>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으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다.

한국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2018년 종편, 케이블 참여 매체 25개사에 대한 유효부수 인증 결과 조선일보가 145만 8614부로 국내 일간지 중 1위를 기록했다. 2017년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 중에서 <조선일보>가 발행부수가 151만3073부, 유료부수가 125만 4297부로 기록했고 1위를 차지했다.

<한겨레>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는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민족의 통일을 목표로 책임 있는 언론정립'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대중적 정론지'라고 한다. 시사주간지 시자저널이 2014년 9월 전문가를 대상 실시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열독하는 언론 매체로는 한겨레, 조선일보, KBS, 네이버의 순서였고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한겨레를 꼽았다. 2017년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에 따르면 <한겨레>는 발행수가 23만9431부이고 7위를 차지했다.

<인민일보>는 1949년 8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 승격되었다. <인민일보>는 심양, 상해, 무한, 광주 등 큰 도시에서도 똑같은 <인민일보>가 인쇄된다. 1997년 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인민일보>인터넷 판이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오늘날 중국 최대의 신문이자 최고의 권위지

로서, 스스로 표방하고 있듯이 중국의 입장에서 외부세계와 중국의 중요한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全国报刊内容汇编 ,1997)

<인민일보>의 주요 기능은 정부의 공식정보 전달,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다. 그리고 <인민일보>는 창간 당시 발행지면이 4면에서 지금은 16면으로 증면되었고, 현재는 매주 토, 일요일에는 8면을 발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6면으로 지면이 크게 확대되었다. <인민일보>의 지면 구성은 <표 2>와 같다.

2017년 <인민일보>의 총 편집장에 따르면 <인민일보>가 매년의 발행량이 총 330만 정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인민일보> 매일 사용자는 6.5억이라고 말했다. 2015년 전국의 언론사에서 <인민일보>의 발행량이 280만부를 기록했고 2위를 차지했다. 2015년 세계 신문협회에 세계 일간지의 발행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20명 중 <인민일보>는 186만부를 기록했고 18위를 차지했다.

<광명일보>는 1949년 6월 16일 , 북경에서 중국민주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 창간되었으며, 1953년 1월 중국 각민주 당파와 중화 전국 공상연합 그리고 무당파 민주인사연합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바뀌었다. 현재 베이징에서 조간으로 발행되는 이 신문은 전국에 걸쳐 지식계층을 주된 독자대상으로 하는 종합지로서, 스스로 밝히듯이 중국의 지식계를 대변하는 창구이다. 보도의 특징은 교육, 과학, 문화 등 부분이다.

독자는 120개 국가를 넘어 사회의 각 계층까지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광명일보>는 전국의 발행량이 102.95만부를 달성되었다. 2017년 발행량이 95만부를 했는데 창간 35후 최고로 기록했다. 2016년 우체국 신문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명일보>는 발행량이 80부 정도 기록했다. 이상의 시간에 따라서 보면 <광명일보>는 발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광명일보>는 잠재력이 있고 중국 언론사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 <광명일보>의 지면은 <표 1>와 같다.

<표 1 > 신문사별 지면 구성

	인민일보	광명일보
지면	지면 구성	지면 구성
1	뉴스 요약	뉴스 요약
2	뉴스 요약	뉴스 요약
3	뉴스 요약	종합
4	뉴스 요약	교육/과학
5	특집	문학
6	뉴스 요약	교육 뉴스
7	이론	군사
8	광고	국제뉴스
9	오피니언	환경
10	경제	사회
11	정치	국학
12	문화	문화
13	사회	
14	환경	
15	광고	
16	지방뉴스	

3) 분석기간 및 자료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시점인 2016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1년인 2015년 7월 8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검색창에 “중국” 이란 키워드를 입력해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기사를 추출하였다. 해당 기사 속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도 기사의 2/3이상이 중국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신문의 경우 <인민일보>와 <광명일보>의 홈페이지 검

색창에 들어간 후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해당 기사를 찾아냈지만, 이 기사들을 출력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500개 정도의 신문사 기사가 검색되는 <CHKD 신문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가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해당기사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 기사 가운데 한국에 관한 내용이 2/3이상 되는 기사만을 뽑았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 7월 8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 2년 동안 4개 신문에 보도된 양국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추출 결과, 중국에 관한 뉴스는 <조선일보>에서 총412건, <한겨레>에서 총438건이 보도되었고, 한국에 관한 뉴스는 <인민일보>에 총 73건, <광명일보>에 총25건이 보도되었다.

4) 분석 절차

(1) 표본의 코딩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각의 연구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특정 국가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기사의 량, 기사 유형, 기사의 주제, 기사 보도지면, 사진, 정보원 그리고 보도태도(논조)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한국과 중국 언론에 투영된 양국의 이미지가 사드 배치 전 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사의 게재 지면, 기사의 유형, 정보원, 기사의 주제, 기사의 보도(논조)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2>참조).

기사 지면은 종합/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국제면, 오피니언(여론/사설),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사의 유형에 사용된 유목은 스트레이트, 해설/분석, 기획/연재기사, 인터뷰/대담, 사설, 칼럼, 기타로 분류하였다. 정보원은 외국통신사, 자체취재, 외부투고, 다른 신문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취재원은 실명 취재원, 익명 취재원을 했다. 뉴스 출처는 자체취재/ 자사특파원(기자나 특파원, 통신원이 쓴 기사), 외국통신사 (외국방송사 이름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 AP, UPI , Reuter), 국내통신사(연합통신 등), 독자투고(학자, 전문가 혹은 독자가 투고한 기사), 기타(그 외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로 분류했다.

인물사진은 대통령, 주요 공직자(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주지사 등), 주요 사회 인사/ 기업인/ 연예인 등, 사건중심인물(범인), 일반인(성인, 청소년/학생, 군인, 기타로 분석했다. 사진 출처는 자사 기자, 외신, 타 매체, 독자제공, 기타를 분류했다. 그리고 인물사진의 성별은 남, 여, 혼합, 기타로 분류했다.

내용적 특징으로는 기사의 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뉴스 보도 내용에 따라 정치(정부와 관련된 활동이나 정책, 정치인 및 그들의 활동, 부정부패, 정당대회, 국가방문, 선거, 승진이나 퇴직, 사다 배치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의 시외), 경제(거래량이나 물건 종류, 등 외국과의 무역, 유통, 수준, 환율, 금리 등, 기업), 사회(인간의 흥미, 자연재해, 큰 사고, 범죄활동), 문화(전통 역사, 한류의 관한 드라마, 연예인, 축제, 유산 등), 국방(군사, 국가 안보, 사드 미사일 무기, 북한 문제), 외교(대외의 관계, 외교적 회의, 양토분재, 위안부 문제 등), 복지(병원, 노인원, 의료보험, 취직, 장애인, 노인화 사회), 관광(관광 객수/상황, 관광 보조물), 환경(미세먼지, 기후, 쓰레기 문제), 교육과학(통신, 의료과학 기술 발전, 개발, 첨단과학기술, 박람회, 학술 활동, 학교/학원 상황) 스포츠(체육 경기 대회, 운동 선수, 감독) 등을 나누었다.

보도방향은 대상국가에 대한 보도입장이 긍정적인가, 중립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였다.

<표 2 > 분석항목 및 유목

번호	분석 항목	분석 유목
Q 1	보도 시기	①2015년7월8일 ~ 2016년 7월7일(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전) ②2016년7월8일 ~ 2017년 7월 8일(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Q 2	기사 유형	①스트레이트 ②해설/분석 ③기획/연재기사 ④인터뷰/대담 ⑤ 사실 ⑥칼럼 ⑦기타
Q 3	신문지면	①종합/정치면 ②경제면 ③사회면 ④국제면 ⑤ 문화면/연예 ⑥스포츠 ⑦오피니언(여론/사설) ⑧기타
Q 4	정보원 유형	①대통령/주석, 청와대 ②국방부 ③외교부 ④기타 중앙정부(부처) (외의 제외하는 것) ⑤ 지방정부 ⑥교수 / 학자/ 박사/ 연구원 ⑦전문가(감독, 연예인, 부장, 변호사, 의사,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 ⑧타 언론사(신문, 방송, 외국 통신사, 외국 신문) ⑨자료(통계, 합의, 문서, 책 등) ⑩국회(국회의원/ 정치인) ⑪시민사회단체(환경운동 연합 등 비정부 조직이면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 ⑫사회/이익단체(체육단체, 농수축산업, 노동단체, 문화예술, 중소기업지원센터, 장애인단체) ⑬일반인(시민의 직업을 말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으로 한다) ⑭법원/검찰/경찰 ⑮위안부 ⑯군인 ⑰경제기관(은행) ⑱기타
Q 5	취재원 유형	①실명 취재원: 기사에 취재원의 이름과 직책 등이 분명히 밝혀지는 실명 개인 취재원이나 보도자료, 성명서, 법정 판결문등을 말하는 간접 취재원이나 공공 단체나 기업 등을 말하는 단체 취재원 ②익명 취재원: 한 참석자 등과 같이 취재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나 ‘가명’이라고 적은 것이나 성명이 밝혀져 있지 않은 복수의 인물 취재원을 말하는 불특정 다수 취재원

Q 6	뉴스 출처	① 자체취재/ 자사특파원(기자나 특파원, 통신원이 쓴 기사) ② 외국통신사(외국방송사 이름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 AP, UPI , Reuter) ③ 국내통신사(연합통신 등) ④ 독자투고(학자, 전문가 혹은 독자가 투고한 기사) ⑤ 기타(그 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Q 7	인물 사진 유형	① 대통령 ② 주요 공직자(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주지사 등) ③ 주요 사회 인사/ 기업인/ 연예인 등 ④ 사건 중심인물(범인) ⑤ 일반인(성인) ⑥ 청소년/ 학생 ⑦ 군인 ⑧ 기타
Q 8	인물사진 성별	① 남 ② 여 ③ 혼합 ④ 기타
Q 9	사진 출처	① 자사 기자 ② 외신. 타 매체 ③ 독자제공 ④ 기타
Q 10	기사 주제	① 정치/ 각종 시위: 정부와 관련된 활동이나 정책; 정치인 및 그들의 활동 ;부정부패; 정당대회; 국가방문; 선거; 승진이나 퇴직 등 인사 변동; 사드 배치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시위; 정치 체제; 민주화; ② 외교: 대외의 관계; 외교적 회의; 영토분쟁; 국제 교류; 위안부 등 ③ 경제: 거래량이나 물건 종류 등 외국과의 무역; 무역 협의 관계; 농수축 산업 현황; 유통 현황; 경제성장률; 수준이 세계에서 몇 위; 외환보유액; 환율; 금리, 비트코인 등 금융; 증시; 위안화; 전기차, IT, 전자상품, 화장품, 친환경 등 기업 경영 및 그의 상품 소개 ; 소비현황; 투자 수매; 인터넷 쇼핑; 집값; 기업 인수; 인터넷 스타 경제; 창업 경제 등 ④ 문화/연예/ 오락/종교: 전통 역사/ 민속 문화; 한류의 관한 드라마; 영

		<p>화; 음악; 예능프로그램; 연예인; 문화 축제, 교류; 무형문화 유산; 도자기 등 예술품; 음식 문화 등</p> <p>⑤ 국방: 국방 건설; 군사 훈련; 국가 안보 및 사드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무기; 철준; 진군 등 군사 활동; 군인; 북한 문제 등</p> <p>⑥사회/범죄사건/재난/사고/: 생방송, 관군제 등 인간의 흥미; 자연재해; 테진 폭발이나 교통 등 큰 사고; 실종이나 중요한 인물 등 경찰 및 검찰의 수사; 판결의 범죄사건; 시기; 장기 기증; 민족간의 충돌; 병원 의원 분쟁 등</p> <p>⑦보건/복지/건강 : 병원; 노인원; 의료보험; 취직 ;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봉사활동; 저출산율; 노인화 ; 결혼문제; 유서우 아동 문제; 청소년문제; 직장생활; 등</p> <p>⑧관광/여가/여행 : 관광객수/관광동향의 상황; 여행지의 홍보; 관광보조물, 서비스등</p> <p>⑨환경: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 기후 등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 문제 ; 쓰레기 문제</p> <p>⑩과학/ 교육 : 통신, 의료 과학 기술 발전개발; 우주 탐구나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박람회; 학술 활동; 유치원 ,초 중등 , 고등 및 대학 교육 등 교육부 관련 기관; 노벨상</p> <p>⑪스포츠: 체육 경기 대회; 운동 선수; 감독 등</p> <p>⑫기타: 각 분야의 대중 내용</p>
Q11	보도 태도	<p>①긍정적(유쾌, 유모어적, 조화적, 건전, 건설적, 회복경향, 공유, 협동, 이타적, 애정적, 확신적, 긍정적인 새로운 발견, 호전경향 등.)</p> <p>②중립적(완전히 긍정적도 부정적도 아닌 논조로 인식될 때 혹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해설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일 때.)</p> <p>③부정적(불쾌, 갈등적, 불건전, 섬뜩함, 기만적, 파괴적, 모욕적, 욕설적, 악화경향 등.)</p>

5) 코더들 간의 신뢰성의 측정

분석자료 코딩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1명하고, 본 연구자가 참여했다. 같은 자료를 반복 측정해서 나온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에 걸쳐 사전 분석 작업을 하였다. 코딩의 신뢰도는 홀스티(Holsti, 1969)의 신뢰도 검증공식을 이용하였다. 코더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text{신뢰도} = 2M / (N1 + N2)$$

여기에서 M은 2명의 분석자 간의 일치한 코딩수를 말하며, N1은 분석자 1이 코딩한 수, N2는 분석자 2가 코딩한 수를 의미한다. 2명의 코딩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각 언론사별로 10%에 해당하는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항목별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를 포함한 1명의 코더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분석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사의 유형 .912, 기사의 지면 .931, 정보원 .901, 취재원 .921, 주제 .920, 태도 .913, 뉴스출처 .927, 인물사진 .933 등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신뢰도 검증을 마친 코딩 데이터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스퀘어(X^2)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검증 수준은 95%이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일반적인 분석결과

1) 기사 보도량

한국 신문에 보도된 중국 관련기사는 850건, 중국 신문에 보도된 한국 관련 기사는 98건으로 총 948건이 추출되었다. 또한, 각 언론사별로 보도량을 살펴보면, <한겨레>가 438건, <조선일보>가 412건, <인민일보> 73건, <광명일보> 25건으로 나타나 <한겨레>가 분석대상 언론사 중에서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왔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이 중국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함으로써 한국 언론이 중국에 비교적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은 <한겨레>의 보도량이 제일 많고 중국 언론은 <인민일보>의 보도량이 제일 많다. 또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배치 전(53.8%)이 배치 후(46.2%)보다 많았고,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전(39.8%)보다 사드 배치 후(60.2%)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드배치 이후에 중국 언론이 한국에 비교적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언론사별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7.071$, $df=3$, $p<0.05$). 즉,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중국 신문사들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각 언론사별 보도량

(단위: 보도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전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빈도	235 (53.7)	203 (46.3)	222 (53.9)	190 (46.1)	30 (42.9)	43 (58.9)	9 (36.0)	16 (64.0)	496 (52.3)	452 (47.7)
합계	438(100.0)		412(100.0)		73(100.0)		25(100.0)		948(100.0)	

$\chi^2=7.071$, $df=3$, $p<0.05$

<표 4> 각 나라별 보도량

(단위: 보도건수, ()은 %)

구분	한국 소계		조선일보		중국 소계		전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비도	457 (53.8)	393 (46.2)	222 (53.9)	190 (46.1)	39 (39.8)	59 (60.2)	496 (52.3)	452 (47.7)
합계	850(100.0)		412(100.0)		98(100.0)		948(100.0)	

2) 보도지면

(1) 각 나라별 지면

다음은 양국의 주요 신문들이 어떤 지면에 해당 기사를 많이 보도했는지 살펴 보았다. 각 국가의 언론사별 보도지면은 <표 5>와 같다.

먼저,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지면을 살펴보면, 국제면 (65.5%) 에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경제 (9.9%), 오피니

언(7.8%), 문화 (6.5%), 종합 (4.1%), 사회 (2.7%), 스포츠 (2.4%), 기타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국제면 (64.6%)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경제 (10.6%), 오피니언 (8.0%), 문화 (5.9%), 종합 (4.1%), 사회 (2.8%), 스포츠 (2.6%), 기타 (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국제면 (70.4%)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화 (12.2%), 오피니언 (6.1%), 종합과 경제 (각각 4.1%) , 사회 (2.0%), 스포츠 (1.0%) 순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기사 지면을 비교해 볼 때, 양국 언론 모두가 “국제”면이 제일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경제”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중국 언론은 “문화”면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4개 신문이 두 나라의 뉴스를 어떤 지면을 통해 가장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종합면에는 조선일보와 인민일보가 타 신문에 비해 평균치보다 더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고, 경제면에는 한겨레신문이 사회면에는 조선일보, 국제면에는 한겨레와 인민일보, 문화면에는 조선일보와 광명일보, 오피니언면에는 조선일보가 평균치보다 더 많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리고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 신문은 국제면(71.2%), 경제면 (13.2%), 문화면, 오피니언 면 (4.1%), 종합면 (3.2%), 스포츠 (2.5%), 사회면 (1.4%),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신문은 국제면 (57.5%), 종합면 (53.8%), 오피니언면 (12.1%), 경제면, 문화면(각각 7.8%), 사회면 (4.4%), 스포츠면 (2.7%)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 신문은 국제 (78.1%), 경제면, 종합면(각각 5.5%) 순으로, 오피니언면 (4.1%), 사회면, 문화면(각각 2.7%), 스포츠면 (1.4%)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국제면 (48%), 문화면 (40.0%), 오피니언면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4개의 신문사별 지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신문사마다 서로 다른 지면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2=11.942$, $df=21$, $p<.05$)

<표 5> 각 나라 언론사별 지면

(단위: 보도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 소계	전체
종합	14 (3.2)	21 (53.8)	35 (4.1)	4 (5.5)	0 (0.0)	4 (4.1)	39 (4.1)
경제	58 (13.2)	32 (7.8)	90 (10.6)	4 (5.5)	0 (0.0)	4 (4.1)	94 (9.9)
사회	6 (1.4)	18 (4.4)	24 (2.8)	2 (2.7)	0 (0.0)	2 (2.0)	26 (2.7)
국제	312 (71.2)	237 (57.5)	549 (64.6)	57 (78.1)	12 (48.0)	69 (70.4)	618 (65.2)
문화	18 (4.1)	32 (7.8)	50 (5.9)	2 (2.7)	10 (40.0)	12 (12.2)	62 (6.5)
스포츠	11 (2.5)	11 (2.7)	22 (2.6)	1 (1.4)	0 (0.0)	1 (1.0)	23 (2.4)
오피 니언	18 (4.1)	50 (12.1)	68 (8.0)	3 (4.1)	3 (12.0)	6 (6.1)	74 (7.8)
기타	1 (0.2)	11 (2.7)	12 (1.4)	0 (0.0)	0 (0.0)	0 (0.0)	12 (1.3)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chi^2=11.942$, $df=21$, $p<.05$

(2) 시기별 지면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중 언론의 기사 지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는 종합면, 경제면, 기사 비율이 높아지고 국제면, 문화면 기사 비율이 낮아졌다. 그 다음에는 사회면, 스포츠면 기사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오피니언면 기사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는 국제면 기사 비율은 53.8%에서 81.3%로 많이 높아지고 종합면, 문화면 기사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그 다음에는 사회면, 스포츠면 조금 높아지고 오피니언면과 경제면 기사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기사 지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에 대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한겨레>는 경제면은 7.2%에서 20.2%로 많이 많아졌다. 종합면은 1.3%에서 5.4%로, 사회면은 0.9%에서 2.0%로, 스포츠는 0.9%에서 4.4%로 좀 많아졌다. 근데 국제면은 79.6%에서 61.6%로 좀 많이 떨어졌다. 문화면은 5.1%에서

3.0%로, 오피니언 면은 4.7%에서 3.4%로, 기타는 0.4%에서 0.0%로 조금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국제 면은 53.6%에서 62.1%로 8.5%로 증가하였다. 종합 면은 3.2%에서 7.4%로, 사회면은 4.1%에서 4.7%로, 스포츠 면은 2.3%에서 3.2%로 좀 많아졌다. 반면에는 경제면은 10.8%에서 4.2%로, 문화면은 9.9%에서 5.3%로, 기타는 4.1%에서 1.1%로 좀 떨어졌다. 오피니언 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국제 면은 63.3%에서 88.4%로 많이 증가하였다. 사회면은 0.0%에서 4.7%로, 스포츠 면은 0.0%에서 2.3%로 좀 많아졌다. 근데 종합 면은 13.3%에서 0.0%로, 경제면은 10.0%에서 2.3%로, 문화면은 6.7%에서 0.0%로, 오피니언 면은 6.7%에서 2.3%로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국제 면은 22.2%에서 48.0%로 많이 많아졌다. 오피니언 면은 11.1%에서 12.5%로 좀 많아졌다. 문화면은 66.7%에서 25.0%로 많이 떨어졌다. 종합 면, 경제면, 사회면, 스포츠면, 기타는 다 변화가 없고 0.0%로 나타났다. 즉, 한국 신문인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중국에 대한 기사의 지면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또한,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한국에 대한 기사의 지면에 차이를 보였다($P < .05$). 반면 중국 신문인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드 배치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인민일보의 상대국에 대한 기사 지면에 영향을 미쳤으며, 광명일보의 한국 관련 기사 지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P > .05$).

<표 6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지면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국 소계		중국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종합	10 (2.1)	25 (6.3)	4 (10.2)	0 (0.0)	14 (2.8)	25 (5.5)
경제	41 (8.9)	49 (12.4)	3 (7.6)	1 (1.6)	44 (8.8)	50 (11.0)
사회	11 (2.4)	13 (3.3)	0 (0.0)	2 (3.3)	11 (2.2)	15 (3.3)
국제	306 (66.9)	243 (61.8)	21 (53.8)	48 (81.3)	327 (65.9)	291 (64.3)
문화	34 (7.4)	16 (4.0)	8 (20.5)	4 (6.7)	42 (8.4)	20 (4.4)
스포츠	7 (1.5)	15 (3.8)	0 (0.0)	1 (1.6)	7 (1.4)	16 (3.5)
오피니언	38 (8.3)	30 (7.6)	3 (7.6)	3 (5.0)	41 (8.2)	32 (7.0)
기타	10 (2.1)	2 (0.5)	0 (0.0)	0 (0.0)	10 (2.0)	2 (0.4)
합계	457 (100.0)	393 (100.0)	39 (100.0)	59 (100.0)	496 (100.0)	452 (100.0)

<표 7>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지면 (단위: 보도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종합	3 (1.3)	11 (5.4)	7 (3.2)	14 (7.4)	4 (13.3)	0 (0.0)	0 (0.0)	0 (0.0)
경제	17 (7.2)	41 (20.2)	24 (10.8)	8 (4.2)	3 (10.0)	1 (2.3)	0 (0.0)	0 (0.0)
사회	2 (0.9)	4 (2.0)	9 (4.1)	9 (4.7)	0 (0.0)	2 (4.7)	0 (0.0)	0 (0.0)
국제	187 (79.6)	125 (61.6)	119 (53.6)	118 (62.1)	19 (63.3)	38 (88.4)	2 (22.2)	10 (48.0)
문화	12 (5.1)	6 (3.0)	22 (9.9)	10 (5.3)	2 (6.7)	0 (0.0)	6 (66.7)	4 (25.0)
스포츠	2 (0.9)	9 (4.4)	5 (2.3)	6 (3.2)	0 (0.0)	1 (2.3)	0 (0.0)	0 (0.0)
오피니언	11 (4.7)	7 (3.4)	27 (12.2)	23 (12.1)	2 (6.7)	1 (2.3)	1 (11.1)	2 (12.5)
기타	1 (0.4)	0 (0.0)	9 (4.1)	2 (1.1)	0 (0.0)	0 (0.0)	0 (0.0)	0 (0.0)
합계	235 (100.0)	203 (100.0)	222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한겨레> : $X^2=33.675$, $df=7$, $p<.05$ / <조선일보> $X^2=17.322$, $df=7$, $p<.05$

<인민일보> : $X^2=14.822$, $df=6$, $p<.05$ / <광명일보> $X^2=4.456$, $df=2$, $p>.05$

3) 정보원 유형

(1) 각 나라별 정보원 유형

다음은 한국 언론에 어떤 유형의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고, 중국 언론에는 어떤 유형의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정보원 유형은 <표 8>와 같다.

먼저,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정보원 유형을 살펴보면, 타 언론사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전문가 (16.9%), 교수/학자

(11.4%), 대통령 (10.5%), 중앙정부 (7.2%), 일반인 (5.5%), 자료 (5.2%), 외교부(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타 언론사 (30.5%), 전문가 (17.7%), 대통령 (10.9%), 교수/학자 (10.8%), 중앙정부 (6.9%), 일반인 (5.7%), 외교부 (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한국 언론과 유사하게 타 언론사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료 (18.4%), 교수/학자 (15.9%), 전문가 (10.9%), 중앙정부 (9.5%), 대통령 (7.0%), 일반인 (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국가의 정보원 유형을 비교해 볼 때, 한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전문가' '외교부' '대통령' 정보원이 많이 등장하고, 중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자료' '교수/학자' 정보원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는 타 언론사 (33.1%), 전문가 (14.4%), 교수/학자 (11.3%), 대통령 (10.2%)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교부 (6.5%), 중앙정부 (6.1%), 일반인 (5.3%), 자료 (4.5%), 사회단체 (1.8%), 국회 (1.4%), 은행기관 (1.6%), 국방부 (1.3%)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신문사는 타 언론사 (27.4%), 전문가 (21.4%), 대통령 (11.8%), 교수/학자 (10.3%)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다음은 중앙정부 (7.8%), 일반인 (6.2%), 자료 (2.5%), 국회 (2.3%)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타 언론사 (21.1%), 교수/학자 (18.2%), 자료 (17%), 전문가 (10.9%), 중앙정부 (8.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대통령 (6.1%), 국방부 (3.6%), 위안부와 시민단체 (각각 2.4%), 일반인 (4.2%), 외교부와 국회 (각각 1.8%)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자료 (25.0%), 타 언론사 (16.7%), 중앙정부 (13.9%), 대통령과 전문가 (각각 11.1%), 외교부와 교수/학자 (각각 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각 나라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 체
대통령	88 (10.2)	88 (11.8)	176 (10.9)	10 (6.1)	4 (11.1)	14 (7.0)	190 (10.5)
국방부	11 (1.3)	12 (1.6)	23 (1.4)	6 (3.6)	0 (0.0)	6 (3.0)	29 (1.6)
외교부	56 (6.5)	16 (2.1)	72 (4.5)	3 (1.8)	2 (5.6)	5 (2.5)	77 (4.2)
중앙정부	53 (6.1)	58 (7.8)	111 (6.9)	14 (8.5)	5 (13.9)	19 (9.5)	130 (7.2)
위안부	2 (0.2)	0 (0.0)	2 (0.1)	4 (2.4)	0 (0.0)	4 (2.0)	6 (0.3)
교수/학자	98 (11.3)	77 (10.3)	175 (10.8)	30 (18.2)	2 (5.6)	32 (15.9)	207 (11.4)
전문가	125 (14.4)	160 (21.4)	285 (17.7)	18 (10.9)	4 (11.1)	22 (10.9)	307 (16.9)
타 언론사	287 (33.1)	205 (27.4)	492 (30.5)	35 (21.2)	6 (16.7)	41 (20.4)	533 (29.4)
자료	39 (4.5)	19 (2.5)	58 (3.6)	28 (17.0)	9 (25.0)	37 (18.4)	95 (5.2)
국회	12 (1.4)	17 (2.3)	29 (1.8)	3 (1.8)	1 (2.8)	4 (2.0)	33 (1.8)
시민단체	5 (0.6)	2 (0.3)	7 (0.4)	4 (2.4)	0 (0.0)	4 (2.0)	11 (0.6)
사회단체	16 (1.8)	4 (0.5)	20 (1.2)	1 (0.6)	0 (0.0)	1 (0.5)	21 (1.2)
일반인	46 (5.3)	46 (6.2)	92 (5.7)	7 (4.2)	1 (2.8)	8 (4.0)	100 (5.5)
은행기관	14 (1.6)	10 (1.3)	24 (1.5)	0 (0.0)	0 (0.0)	0 (0.0)	24 (1.3)
법원	4 (0.5)	12 (1.6)	16 (1.0)	1 (0.6)	0 (0.0)	1 (0.5)	17 (0.9)
군인	3 (0.3)	1 (0.1)	4 (0.2)	0 (0.0)	0 (0.0)	0 (0.0)	4 (0.2)
기타	7 (0.8)	21 (2.8)	28 (1.7)	1 (0.6)	2 (5.6)	3 (1.5)	31 (1.7)
합계	866 (100.0)	747 (100.0)	1613 (100.0)	165 (100.0)	36 (100.0)	201 (100.0)	1814 (100.0)

* 1 개의 기사에 등장한 정보원을 모두 체크하는 다중응답방법을 사용하였음.

(2) 시기별 정보원 유형

다음은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정보원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라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9>과 같다.

먼저,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이후에는 외교부의 경우 2.8%에서 6.3%로, 국방부가 0.7%에서 2.6%로, 대통령이 10.2%에서 11.7%로, 타 언론사가 28.5%에서 32.8%로, 국회가 1.1%에서 2.6%로 비율이 높아졌고, 다른 정보원들은 대부분 그 비율이 낮아졌다.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중앙정부, 교수/학자, 전문가 등장 비율이 매우 낮아졌고, 타 언론사는 11.1%에서 25.8%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국회, 일반인,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비율이 높아졌다.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의 시기별 차이는 <표 10>과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대통령은 9.8%에서 10.6%로, 국방부는 1.0%에서 2.1%로, 외교부는 4.3%에서 9.0%로, 전문가는 13.3%에서 15.7%로, 국회는 0.4%에서 2.7%로 비율이 높아졌다. 다른 것은 비율이 좀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대통령은 10.8%에서 12.8%로, 국방부는 0.3%에서 3.1%로, 외교부는 1.0%에서 3.4%로, 중앙정부는 6.2%에서 9.5%로, 타 언론사가 22.6%에서 32.7%로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교수/학자는 13.6%에서 6.7%로, 전문가는 24.9%에서 17.6%로, 자료는 3.1%에서 2.0%로, 일반인은 7.2%에서 5.0%로, 은행 기관은 1.8%에서 0.8%로, 법원은 2.1%에서 1.1%로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타 언론사는 11.6%에서 28.1%로 매우 높게 증가했다. 다른 것은 국방부가 1.4%에서 5.2%로, 외교부가 0.0%에서 3.1%로, 국회가 0.0%에서 3.1%로, 시민단체가 0.0%에서 4.2%로, 사회단체도 0.0%에서 1.0%로, 일반인이 1.4%에서 6.3%로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전문가가 15.9%에서 7.3%로, 교수/학자가 24.6%에서 13.5%로, 자료도 20.3%에서 14.6%로 많이 떨어졌다. 대통령이 7.2%에서 5.2%로, 중앙정부가 11.6%에서 6.3%로, 위안부가 2.9%에서 2.1%로, 법원이 1.4%에서 0.0%로 좀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대통령이 0.0%에서 16.7%로, 타 언론사는 8.3%에서 16.7%로, 자료가 16.7%에서

29.2%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국회가 0.0%에서 4.2%로 비율이 좀 높아졌다. 근데 중앙정부가 16.7%에서 12.5%로, 교수/학자가 8.3%에서 4.2%로, 전문가가 16.7%에서 12.5%로, 일반인이 1%에서 0.0%로, 기타는 2%에서 0.0%로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표 9>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정보원 유형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국 소계		중국 소계		전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대통령	90 (10.2)	86 (11.7)	5 (6.2)	9 (7.5)	95 (9.9)	95 (11.1)
국방부	6 (0.7)	19 (2.6)	1 (1.2)	5 (4.2)	7 (0.7)	24 (2.8)
외교부	25 (2.8)	46 (6.3)	1 (1.2)	4 (3.3)	26 (2.7)	50 (5.9)
중앙정부	54 (6.1)	56 (7.6)	10 (12.3)	9 (7.5)	64 (6.7)	65 (7.6)
위안부	2 (0.2)	0 (0.0)	2 (2.5)	2 (1.7)	4 (0.4)	2 (0.2)
교수/학자	110 (12.5)	65 (8.9)	18 (22.2)	14 (11.7)	128 (13.3)	79 (9.3)
전문가	162 (18.4)	122 (16.6)	13 (16.0)	10 (8.3)	175 (18.2)	132 (15.5)
타 언론사	251 (28.5)	241 (32.8)	9 (11.1)	31 (25.8)	259 (27.0)	272 (31.9)
자료	37 (4.2)	21 (2.9)	16 (19.8)	21 (17.5)	53 (5.5)	42 (4.9)
국회	10 (1.1)	19 (2.6)	0 (0.0)	4 (3.3)	10 (1.0)	23 (2.7)
시민단체	4 (0.5)	3 (0.4)	0 (0.0)	4 (3.3)	4 (0.4)	7 (0.8)
사회단체	16 (1.8)	4 (0.5)	0 (0.0)	1 (0.8)	16 (1.7)	5 (0.6)
일반인	60 (6.8)	32 (4.4)	2 (2.5)	6 (5.0)	62 (6.5)	38 (4.4)
은행기관	17 (1.9)	7 (1.0)	0 (0.0)	0 (0.0)	17 (1.8)	7 (0.8)
법원	12 (1.4)	4 (0.5)	1 (1.2)	0 (0.0)	13 (1.4)	4 (0.5)
군인	3 (0.3)	0 (0.0)	0 (0.0)	0 (0.0)	3 (0.3)	0 (0.0)
기타	19 (2.2)	9 (1.2)	3 (3.7)	0 (0.0)	22 (2.3)	9 (1.1)
합계	880 (100.0)	734 (100.0)	81 (100.0)	120 (100.0)	36 (100.0)	854 (100.0)

* 1 개의 기사에 등장한 정보원을 모두 체크하는 다중응답방법을 사용하였음.

<표 10>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정보원 유형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대통령	48 (9.8)	40 (10.6)	42 (10.8)	46 (12.8)	5 (7.2)	5 (5.2)	0 (0.0)	4 (16.7)
국방부	5 (1.0)	8 (2.1)	1 (0.3)	11 (3.1)	1 (1.4)	5 (5.2)	0 (0.0)	0 (0.0)
외교부	21 (4.3)	34 (9.0)	4 (1.0)	12 (3.4)	0 (0.0)	3 (3.1)	1 (4.2)	1 (4.2)
중앙정 부	30 (6.1)	22 (5.9)	24 (6.2)	34 (9.5)	8 (11.6)	6 (6.3)	2 (16.7)	3 (12.5)
위안부	2 (0.4)	0 (0.0)	0 (0.0)	0 (0.0)	2 (2.9)	2 (2.1)	0 (0.0)	0 (0.0)
교수/학 자	57 (11.6)	41 (10.9)	53 (13.6)	24 (6.7)	17 (24.6)	13 (13.5)	1 (8.3)	1 (4.2)
전문가	65 (13.3)	59 (15.7)	97 (24.9)	63 (17.6)	11 (15.9)	7 (7.3)	2 (16.7)	3 (12.5)
타 언론사	163 (33.1)	124 (33.0)	88 (22.6)	117 (32.7)	8 (11.6)	27 (28.1)	1 (8.3)	4 (16.7)
자료	25 (5.1)	14 (3.7)	12 (3.1)	7 (2.0)	14 (20.3)	14 (14.6)	2 (16.7)	7 (29.2)
국회	2 (0.4)	10 (2.7)	8 (2.1)	9 (2.5)	0 (0.0)	3 (3.1)	0 (0.0)	1 (4.2)
시민단 체	3 (0.6)	2 (0.5)	1 (0.3)	1 (0.3)	0 (0.0)	4 (4.2)	0 (0.0)	0 (0.0)
사회단 체	13 (2.7)	3 (0.8)	3 (0.8)	1 (0.3)	0 (0.0)	1 (1.0)	0 (0.0)	0 (0.0)
일반인	32 (6.5)	14 (3.7)	28 (7.2)	18 (5.0)	1 (1.4)	6 (6.3)	1 (8.3)	0 (0.0)
은행 기관	10 (2.0)	4 (1.1)	7 (1.8)	3 (0.8)	0 (0.0)	0 (0.0)	0 (0.0)	0 (0.0)
법원	4 (0.8)	0 (0.0)	8 (2.1)	4 (1.1)	1 (1.4)	0 (0.0)	0 (0.0)	0 (0.0)
군인	3 (0.6)	0 (0.0)	0 (0.3)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6 (1.2)	1 (0.3)	13 (3.3)	8 (2.2)	1 (1.4)	0 (0.0)	2 (16.7)	0 (0.0)
합계	490 (100.0)	376 (100.0)	390 (100.0)	358 (100.0)	69 (100.0)	96 (100.0)	12 (100.0)	24 (100.0)

* 1 개의 기사에 등장한 정보원을 모두 체크하는 다중응답방법을 사용하였음.

4) 기사 취재원 유형

(1) 각 나라별 취재원 유형

다음은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기사 취재원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1>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취재원 유형을 살펴보면, 실명 취재원(53.4%)이 익명 취재원(46.5%)보다 6.9%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실명 취재원 (51.4%)이 많이 나오고 익명 취재원이 48.5%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실명 취재원(71.4%)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익명 취재원이 28.5%로 나타났다. 두 국가의 기사를 비교해 볼 때, 한중 언론은 모두가 실명 취재원을 익명 취재원보다 많은 사용한 것으로 많다고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48.5%)이 중국 언론 익명 취재원(28.5%)보다 더 많고, 중국 언론은 실명 취재원(71.4%)은 한국 언론 실명 취재원(51.4%)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인민일보>와 <광명일보>는 실명 취재원을 전체 평균보다 많이 사용했고 <한겨레> 경우 4개 신문사 중에 익명취재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5$).

<표 11>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취재원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체
실명 취재원	216 (49.3)	221 (53.6)	437 (51.4)	55 (75.3)	15 (60.0)	70 (71.4)	507 (53.4)
익명 취재원	222 (50.6)	191 (46.3)	413 (48.5)	18 (24.6)	10 (40.0)	28 (28.5)	441 (46.5)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X^2=17.510$, $df=3$, $p < .05$

(2) 시기별 취재원 유형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중 언론의 취재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2 >과 같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는 실명 취재원(54.4%)이 비율이 더 높아지고 익명 취재원(45.5%)는 낮아졌다. 중국 언론은 실명 취재원이 84.6%에서 62.7%로 낮아지고 익명 취재원이 15.3%에서 37.2%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에 기사 취재원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13 >와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실명 취재원이 43.8%에서 55.7%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익명 취재원이 56.2%에서 44.3%로 비율이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전후를 비교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실명 취재원이 53.1%에서 53.2%로 좀 떨어졌는데 익명 취재원이 45.9%에서 46.8%로 좀 많아졌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전후는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는 실명 취재원이 93.3%에서 62.8%로 30.5%이나 떨어졌다. 그리고 익명 취재원이 6.7%에서 37.2%로 많이 높아졌다. <광명일보>도 사드 배치 결정 전후간에 변화가 있었다. 사드 배치 결정 후에는 실명 취재원이 55.6%에서 62.5%로 높아졌다. 익명 취재원이 44.4%에서 37.5%로 떨어졌다.

<표 12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국가별 기사 취재원 유형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국소계		중국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실명 취재원	233 (50.9)	214 (54.4)	33 (84.6)	37 (62.7)	256 (51.6)	251 (55.5)
익명 취재원	234 (51.2)	179 (45.5)	6 (15.3)	22 (37.2)	240 (48.3)	201 (44.4)
합계	457 (100.0)	393 (100.0)	39 (100.0)	59 (100.0)	496 (100.0)	452 (100.0)

<표 13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취재원 유형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실명 취재 원	103 (43.8)	113 (55.7)	120 (54.1)	101 (53.2)	28 (93.3)	27 (62.8)	5 (55.6)	10 (62.5)
익명 취재 원	132 (56.2)	90 (44.3)	102 (45.9)	89 (46.8)	2 (6.7)	16 (37.2)	4 (44.4)	6 (37.5)
합계	235 (100.0)	203 (100.0)	222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한겨레> : $X^2=6.104$, $df=1$, $p<.05$ / <조선일보> $X^2=0.033$, $df=1$, $p>.05$

<인민일보> : $X^2=8.873$, $df=1$, $p<.05$ / <광명일보> $X^2=0.116$, $df=1$, $p>.05$

<한겨레>,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취재원 유형에 차이를 보였고, <조선일보>와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취재원 유형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드 배치는 <한겨레> 신문과 <인민일보>의 취재원 유형에 영향을 미쳤으나, <조선일보>와 <광명일보>의 취재원 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뉴스 출처

(1) 각 나라별 뉴스 출처

다음은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뉴스 출처를 살펴보았다.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뉴스 출처는 <표 14 >와 같다.

먼저,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뉴스 출처 유형을 살펴보면, 자체취재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독자투고(8.4%), 외국통신사(0.1%), 국내통신사(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자체 취재(91.4%)로 높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다. 그 다음에 독자투고(7.8%), 외국통신사(0.1%), 국내통신사(0.1%)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자체취재 비율(82.7%)이 가장 높게 나오

고, 그 다음에 독자투고는 14.3%로 나타났다. 국내통신사와 독자투고가 없었다.

두 나라의 뉴스 출처 유형을 비교해 볼 때 , 한국과 중국 언론 모두가 자체취재와 독자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겨레>와 <인민일보>는 자체취재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조선일보>와 <광명일보>는 독자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문사별 뉴스 출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14 > 각 나라 언론사별 뉴스 출처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 소계	전체
자체취재	415 (94.7)	362 (87.9)	777 (91.4)	69 (94.5)	12 (48.0)	81 (82.7)	858 (90.0)
외국통신사	0 (0.0)	1 (0.2)	1 (0.1)	0 (0.0)	0 (0.0)	0 (0.0)	1 (0.1)
국내통신사	1 (0.2)	0 (0.0)	1 (0.1)	0 (0.0)	0 (0.0)	0 (0.0)	1 (0.1)
독자투고	20 (4.6)	46 (11.2)	66 (7.8)	1 (1.4)	13 (52)	14 (14.3)	80 (8.4)
기타	2 (0.5)	3 (0.7)	5 (0.6)	3 (4.1)	0 (0.0)	3 (3.1)	8 (0.8)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X^2=91.006, df=12, p<.05$

(2) 시기별 뉴스 출처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중 언론의 뉴스 출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5 >과 같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는 자체 취재가 높아지고 독자투고 비율이 낮아졌다. 그 외 국내통신사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외국 통신사의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독자투고 비율이 높아졌는데 자체 취재 비율이 낮아

졌다. 외국통신사와 국내통신사가 없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에 기사 출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16 >와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자체취재가 94.0%에서 95.6%로 , 국내통신사가 0.0%에서 0.5%로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 독자투고가 5.1%에서 3.9%로, 기타가 0.9%에서 0.0%로 비율이 좀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자체취재가 85.6%에서 90.5%로, 기타는 0.5%에서 1.1%로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독자투고는 13.5%에서 8.4%로 그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독자투고가 0.0%에서 2.3%로, 기타는 3.3%에서 4.7%로 비율이 좀 높아졌다. 근데 자체취재가 96.7%에서 93%로 그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자체취재가 44.4%에서 50%로 비율이 높아졌다. 독자투고는 55.6%에서 50%로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4개 신문 모두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뉴스 출처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모든 신문사의 뉴스 출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5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뉴스 출처 시기별 취재원 유형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국 소계		중국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자체취재	411 (89.9)	366 (93.1)	33 (84.6)	48 (81.3)	414 (95.8)	414 (91.5)
외국통신사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국내통신사	0 (0.0)	1 (0.2)	0 (0.0)	0 (0.0)	1 (0.2)	1 (0.2)
독자투고	42 (9.1)	24 (6.1)	5 (12.8)	9 (15.2)	29 (6.7)	33 (7.3)
기타	3 (0.6)	2 (0.5)	1 (2.5)	2 (3.3)	3 (0.6)	4 (0.8)
합계	457 (100.0)	393 (100.0)	39 (100.0)	59 (100.0)	432 (100.0)	452 (100.0)

<표 16 > 시기에 따른 언론사별 뉴스 출처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자체 취재	221 (94.0)	194 (95.6)	190 (85.6)	172 (90.5)	29 (96.7)	40 (93.0)	4 (44.4)	8 (50.0)
외국 통신사	0 (0.0)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국내 통신사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독자 투고	12 (5.1)	8 (3.9)	30 (13.5)	16 (8.4)	0 (0.0)	1 (2.3)	5 (55.6)	8 (50.0)
기타	2 (0.9)	0 (0.0)	1 (0.5)	2 (1.1)	1 (3.3)	2 (4.7)	0 (0.0)	0 (0.0)
합계	235 (100.0)	203 (100.0)	222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한겨레>: X2=3.236, df=3, p>.05 / <조선일보> X2=4.028, df=3, p>.05

<인민일보> : X2=0.797, df=2, p>.05 / <광명일보> X2=0.071, df=1, p>.05

6) 인물 사진

(1) 나라별 인물사진

한국과 중국 언론은 어떤 인물사진을 주로 다루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인물사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7 >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인물사진을 살펴보면, 주요사회인사(31.8%)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주요공직자 (24.0%), 대통령 (23.6%), 일반인 (1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군인 (3.4%), 청소년/학생 (1.7%), 사건중심인물 (0.9%)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에 보도된 사진인물은 주요 사회인사 (32.7%), 주요공직자 (25.0%), 대통령 (23.6%), 일반인 (11.4%), 군인 (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언론에 보도된 사진은 일반인 (38.5%), 대통령(23.1%), 주요 사회인사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공직자, 청소년/

학생, 군인은 같은 비율 7.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양국 신문에 보도된 인물 사진의 <한겨레> 신문은 주요 사회인사(37.0%), <조선일보> 신문은 주요 사회인사 (28.6%)와 일반인 (13.4%)을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대통령과 일반인, 청소년/학생, 군인의 사진을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한 반면 <광명일보>는 사진을 거의 보도 하지 않는다.

<표17> 각 나라 언론사별 인물사진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 체
대통령	26 (24.1)	26 (23.2)	52 (23.6)	3 (25.0)	0 (0.0)	3 (23.1)	55 (23.6)
주요공 직자	27 (25.0)	28 (25.0)	55 (25.0)	1 (8.3)	0 (0.0)	1 (7.7)	56 (24.0)
주요 사회인 사	40 (37.0)	32 (28.6)	72 (32.7)	2 (16.7)	0 (0.0)	2 (15.4)	74 (31.8)
사건중 심인물	0 (0.0)	2 (1.8)	2 (1.9)	0 (0.0)	0 (0.0)	0 (0.0)	2 (0.9)
일반인	10 (9.3)	15 (13.4)	25 (11.4)	4 (33.3)	1 (100.0)	5 (38.5)	30 (12.9)
청소년/ 학생	1 (0.9)	2 (1.8)	3 (1.4)	1 (8.3)	0 (0.0)	1 (7.7)	4 (1.7)
군인	2 (1.9)	5 (4.5)	7 (3.2)	1 (8.3)	0 (0.0)	1 (7.7)	8 (3.4)
기타	2 (1.9)	2 (1.8)	4 (1.8)	0 (0.0)	0 (0.0)	0 (0.0)	4 (1.7)
합계	108 (100.0)	112 (100.0)	220 (100.0)	12 (100.0)	1 (100.0)	13 (100.0)	233 (100.0)

7) 인물 사진 성별

(1) 각 나라별 사진 성별

한중 언론에 보도된 인물의 성별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표 18 >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사진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혼합(16.0%), 여성(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남성(72.4%) 사진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은 혼합(16.1%), 여성 (11.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언론은 남성(53.8%), 여성(30.8%), 혼합(15.4%) 순으로 나타났다. 양국 신문 기사에 나온 인물 사진을 비교해 볼 때 한국 신문은 남성을, 중국 신문은 여성 사진을 전체 평균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P>.05$).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 신문은 남성 (77.3%), 혼합 (14.4%), 여성 (8.2%)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남성 (67.6%), 혼합 (17.6%), 여성이 (14.7%)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인민일보>는 남성 (58.3%), 여성 (25.0%), 혼합 (16.7%)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거의 다 여성이 나타났다.

<표 18 > 각 나라 언론사별 인물사진성별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소계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 소계	전체
남	75 (77.3)	69 (67.6)	144 (72.4)	7 (58.3)	0 (0.0)	7 (53.8)	151 (71.2)
여	8 (8.2)	15 (14.7)	23 (11.6)	3 (25.0)	1 (100.0)	4 (30.8)	27 (12.7)
혼합	14 (14.4)	18 (17.6)	32 (16.1)	2 (16.7)	0 (0.0)	2 (15.4)	34 (16.0)
합계	97 (100.0)	102 (100.0)	199 (100.0)	12 (100.0)	1 (100.0)	13 (100.0)	212 (100.0)

$\chi^2=11.407, df=6, p>.05$

인물사진에 나타난 성별은 각 신문사별로 차이가 없다. 공통적으로 인물사진에 대부분 남자가 많이 등장하고 여자가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사진 출처

(1) 각 나라별 사진 출처

한중 언론에 보도된 사진 출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9 >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사진 출처를 살펴보면, 외신(47.6%)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기타(37.8%), 자사 사진(13.9%), 독자(0.7%) 순으로 나왔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외신이 39.5%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기타(38.6%), 자사사진(11.8%)과 독자(0.7%)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도 외신(34.9%)과 자사사진(34.9%), 그리고 기타(30.2%) 순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사진 출처를 비교해 볼 때, 한중 양국이 다 외신이 제공한 사진을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외신제공 사진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중국 언론은 자사 사진을 한국 언론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는 외신이 55.1%, 기타가 32.4, 자사사진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기타가 41.9% , 외신이 39.5%, 자사사진이 11.2%, 독자가 0.5%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외신과 기타는 같은 비율이 31.4%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신이 31.4%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외신이 50.0%로 나타났는데 자사사진과 기타는 다 같은 비율 25.0%로 나타났다. 각 신문사별 사진출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 나라별 사진 출처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체
자사 사진	25 (11.6)	24 (11.2)	49 (11.8)	13 (37.1)	2 (25.0)	15 (34.9)	64 (13.9)
외신	119 (55.1)	85 (39.5)	204 (48.9)	11 (31.4)	4 (50.0)	15 (34.9)	219 (47.6)
독자	2 (0.9)	1 (0.5)	3 (0.7)	0 (0.0)	0 (0.0)	0 (0.0)	3 (0.7)
기타	70 (32.4)	90 (41.9)	161 (38.6)	11 (31.4)	2 (25.0)	13 (30.2)	174 (37.8)
합계	216 (100.0)	200 (100.0)	417 (100.0)	35 (100.0)	8 (100.0)	43 (100.0)	460 (100.0)

X²=27.386, df=9, p<.05

제 2 절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과 관련(기사 유형)

(1)각 나라별 기사 유형

한중 언론이 상대 국가를 어떤 형식의 기사로 많이 보도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나라의 언론사별로 기사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20>와 같다.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82.5%가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그 다음은 기획/특집 기사(11.1%), 사설/칼럼(2.7%), 인터뷰(1.4%), 독자투고(1.2%), 해설(0.9%),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스트레이트(82.5%), 기획/특집(11.1%), 사설/칼럼(2.7%), 인터뷰(1.4%), 독자투고(1.2%), 해설(0.9%), 기타(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언론은 스트레이트(82.7%), 독자투고(11.2%), 기획/특집(3.1%), 해설(2.0%), 기타(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나라의 기사를 비교해 볼 때 한중 언론 모두가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언론의 경우 기획/특집 기사를 중국 신문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국 언론 기사유형은 중국보다 더 다양하게 나왔다.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와 <인민일보>는 스트레이트(91.8%) 기사를 <조선일보>와 <광명일보>는 기획/특집 기사를 전체 평균치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4개 신문 중에 독자투고 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유형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 소계	전체
스트레이트	402 (91.8)	299 (72.6)	701 (82.5)	68 (93.2)	13 (52.0)	81 (82.7)	782 (82.5)
해설	8 (1.8)	0 (0.0)	8 (0.9)	2 (2.7)	0 (0.0)	2 (2.0)	10 (1.1)
기획/특집	3 (0.7)	91 (22.1)	94 (11.1)	0 (0.0)	3 (12.0)	3 (3.1)	97 (10.2)
사설/칼럼	13 (3.0)	10 (2.4)	23 (2.7)	0 (0.0)	0 (0.0)	0 (0.0)	23 (2.4)
인터뷰	11 (2.5)	1 (0.2)	12 (1.4)	0 (0.0)	0 (0.0)	0 (0.0)	12 (1.3)
독자투고	1 (0.2)	9 (2.2)	10 (1.2)	2 (2.7)	9 (36.0)	11 (11.2)	21 (2.2)
기타	0 (0.0)	2 (0.5)	2 (0.2)	1 (1.4)	0 (0.0)	1 (1.0)	3 (0.3)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chi^2=279.556$, $df=18$, $p<.05$

(2) 시기별 기사 유형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중 언론의 기사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1 >과 같다.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 스트레이트 비율이 80.2%에서 85.5%로

높아지고, 인터뷰와 사설/칼럼의 비율도 조금씩 높아졌다. 근데 해설은 1.8%에서 0.0%로 낮아졌다. 기획/특집은 12.1%에서 9.9%로, 독자투고는 2.2%에서 0.0%로, 독자투고는 2.2%에서 0.0%로, 그 비율이 모두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 스트레이트가 97.1%에서 79.7%로, 해설은 17.1%에서 1.7%로, 기획/특집은 14.3%에서 0.0%, 인터뷰는 14.3%에서 0.0%로, 독자투고는 14.3%에서 11.9%로 모두 다 낮아졌다. 각 국가의 언론사 별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기사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에 대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한겨레>의 경우는 스트레이트가 91.9%에서 91.6로 조금 떨어졌다. 해설은 3.4%에서 0.0%로, 독자투고도 0.4%에서 0.0%로 떨어졌다. 근데 기획/특집은 0.0%에서 1.5%로, 사설/칼럼은 2.6%에서 3.4%로, 인터뷰는 1.7%에서 3.4%로 좀 많아졌다. <조선일보>의 기사 유형은 기획/특집은 24.8%에서 18.9%로, 사설/칼럼은 2.7%에서 2.1%로, 인터뷰는 0.5%에서, 독자투고는 4.1%에서, 기타는 0.9%에서 다 0.0%로 떨어졌다. 반면에는 스트레이트는 67.1%에서 78.9%로 많아졌다.

<인민일보>의 경우 스트레이트가 96.7%에서 90.7%로, 해설이 3.3%에서, 2.3%로, 떨어졌다. 독자투고가 0.0%에서 4.7%로, 기타도 0.0%에서 2.3%로 많아졌다. 기획/특집, 사설/칼럼, 인터뷰는 다 변화가 없다. <광명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 비율이 55.6%에서 50.0%로, 독자투고는 44.4%에서 31.3%로 떨어졌다. 기획/특집은 0.0%에서 18.8%로 많아졌다. 해설, 사설/컬럼, 인터뷰는 다 변화가 없다.

< 표 21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기사유형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국소계		중국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스트레이 트	365 (80.2)	336 (85.5)	34 (97.1)	47 (79.7)	399 (81.4)	383 (84.7)
해설	8 (1.8)	0 (0.0)	6 (17.1)	1 (1.7)	14 (2.9)	1 (0.2)
기획/특 집	55 (12.1)	39 (9.9)	5 (14.3)	3 (5.1)	60 (12.2)	42 (9.3)
사설/칼 럼	12 (2.6)	11 (2.7)	5 (14.3)	0 (0.0)	17 (3.5)	11 (2.4)
인터뷰	5 (1.1)	7 (1.8)	5 (14.3)	0 (0.0)	10 (2.0)	7 (1.5)
독자투고	10 (2.2)	0 (0.0)	5 (14.3)	7 (11.9)	15 (3.1)	7 (1.5)
기타	2 (0.4)	0 (0.0)	5 (14.3)	1 (1.7)	7 (1.4)	1 (0.2)
합계	455 (100.0)	393 (100.0)	35 (100.0)	59 (100.0)	490 (100.0)	452 (100.0)

< 표 22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유형 (단위: 보도건수, 0은%)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스트레 이트	216 (91.9)	186 (91.6)	149 (67.1)	150 (78.9)	29 (96.7)	39 (90.7)	5 (55.6)	8 (50.0)
해설	8 (3.4)	0 (0.0)	0 (0.0)	0 (0.0)	1 (3.3)	1 (2.3)	0 (0.0)	0 (0.0)
기획/ 특집	0 (0.0)	3 (1.5)	55 (24.8)	36 (18.9)	0 (0.0)	0 (0.0)	0 (0.0)	3 (18.8)
사설/ 칼럼	6 (2.6)	7 (3.4)	6 (2.7)	4 (2.1)	0 (0.0)	0 (0.0)	0 (0.0)	0 (0.0)
인터뷰	4 (1.7)	7 (3.4)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독자투 고	1 (0.4)	0 (0.0)	9 (4.1)	0 (0.0)	0 (0.0)	2 (4.7)	4 (44.4)	5 (31.3)
기타	0 (0.0)	0 (0.0)	2 (0.9)	0 (0.0)	0 (0.0)	1 (2.3)	0 (0.0)	0 (0.0)
합계	235 (100.0)	203 (100.0)	220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한겨레> : $X^2=12.865$, $df=5$, $p<.05$ / <조선일보> $X^2=13.969$, $df=5$, $p<.05$

<인민일보> : $X^2=2.226$, $df=3$, $p>.05$ / <광명일보> $X^2=2.000$, $df=2$, $p>.05$

한국 신문인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기사 유형이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와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사드 배치 이후 기사 유형의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의 기사 유형에 영향을 미쳤으나 중국 언론의 기사 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2)와 관련(기사 주제)

(1) 각 나라별 기사 주제

다음은 각 나라 언론사별로 보도 기사 주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3>와 같다.

먼저,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주제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정치'(24.5%), '외교'(12.3%), '국방'(11.4%), '사회/범죄/재난'(7.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3.3%), '과학'(2.8%), '스포츠'(2.4%), '보건/복지/건강'(1.5%) 등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별로 기사주제를 살펴보면, <한겨레>는 경제 (23.5%), 정치 (22.6%), 외교, 국방 (15.1%), 사회/범죄/자연재해 (8.7%) 순으로 많았고, 문화 (5.0%), 환경 (3.2%), 스포츠 (2.5%), 과학 (2.1%)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경제 (29.6%), 정치 (24.8%) 순으로 많았고, 외교 (8.7%), 국방 (8.3%), 사회/범죄/자연재해 (7.0%), 관광/여행 (3.4%), 환경 (3.6%), 과학 (2.7%), 스포츠 (2.5%)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정치 (34.2%), 외교 (17.8%), 경제와 문화 (각각 9.6%), 국방 (6.8%), 보건/복지/건강 (8.2%), 사회/범죄/자연재해 (5.5%), 관광/여행 (4.1%), 과학과 스포츠가 (각각 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정치 (24.0%), 문화 (28.0%), 과학과 국방 (각각 12.0%)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외교와 경제 (8.0%), 사회/범죄/자연재해 (4.0%), 스포츠 (4.0%)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문사별 기사주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경제’(26.5%)를 전체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한 반면 중국 언론은 ‘정치’(31.6%), ‘외교’(15.3%), ‘문화’(14.3%), 분야를 전체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 하였다.

<표 23 >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주제 유형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 소계	인민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 체
정치	99 (22.6)	102 (24.8)	201 (23.6)	25 (34.2)	6 (24.0)	31 (31.6)	232 (24.5)
외교	66 (15.1)	36 (8.7)	102 (12.0)	13 (17.8)	2 (8.0)	15 (15.3)	117 (12.3)
경제	103 (23.5)	122 (29.6)	225 (26.5)	7 (9.6)	2 (8.0)	9 (9.2)	234 (24.7)
문화	22 (5.0)	18 (4.4)	40 (4.7)	7 (9.6)	7 (28.0)	14 (14.3)	54 (5.7)
국방	66 (15.1)	34 (8.3)	100 (11.8)	5 (6.8)	3 (12.0)	8 (8.2)	108 (11.4)
사회/범죄/자연 재해	38 (8.7)	29 (7.0)	67 (7.9)	4 (5.5)	1 (4.0)	5 (5.1)	72 (7.6)
보건/복지/건강/	1 (0.2)	7 (1.7)	8 (0.9)	6 (8.2)	0 (0.0)	6 (6.1)	14 (1.5)
관광/여행	8 (1.8)	21 (5.1)	29 (3.4)	3 (4.1)	0 (0.0)	3 (3.1)	32 (3.4)
환경	14 (3.2)	17 (4.1)	31 (3.6)	0 (0.0)	0 (0.0)	0 (0.0)	31 (3.3)
과학	9 (2.1)	14 (3.4)	23 (2.7)	1 (1.4)	3 (12.0)	4 (4.1)	27 (2.8)
스포츠	11 (2.5)	10 (2.4)	21 (2.5)	1 (1.4)	1 (4.0)	2 (2.0)	23 (2.4)
기타	1 (0.2)	2 (0.5)	3 (0.4)	1 (1.4)	0(0.0)	1 (1.0)	4 (0.4)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chi^2=115.093, df=33, p<.05$

신문별로 보면 <한겨레>는 외교, 국방, 사회/범죄 분야, <조선일보>는 경제, 관광/여행, 환경 분야,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문화, 보건/복지 분야, <광명일보>는 문화, 과학 분야를 타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5$).

(2) 시기별 기사 주제

다음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국과 중국 언론의 기사 주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4>과 같다.

먼저 한국 언론을 살펴보면, 사드 배치 이후 외교는 6.8%에서 18.1%로, 국방은 6.6%에서 17.8%로 기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고, 경제는 35.0%에서 16.5%로, 정치는 24.7%에서 22.4%로, 문화는 5.7%에서 3.6%로, 사회/범죄/재난은 9.0%에서 6.6%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정치'는 7.7%에서 47.5%로, 외교는 12.8%에서 16.9%로 높아졌고, '경제'는 17.9%에서 3.4%로, '문화' 기사는 28.2%에서 5.1%로 크게 낮아졌다. 그 외 외교, 국방, 보건/복지/건강, 스포츠는 조금 높아졌고, 과학은 조금 낮아졌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에 기사 주제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가 9.8%에서 21.2%로, 국방이 9.8%에서 21.2%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 외에는 관광/여행이 1.3%에서 2.5%로, 과학이 0.9%에서 3.4%로, 스포츠가 1.3%에서 3.9%로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가 31.5%에서 14.3%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정치는 24.3%에서 20.7%로, 문화는 6.8%에서 3.0%로, 사회/범죄는 9.8%에서 7.4%로, 환경은 4.3%에서 2.0%로 비율이 조금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가 3.6%에서 14.7%로, 국방이 3.2%에서 14.2%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 외에는 보건/복지가 0.9%에서 2.6%로, 환경이 3.2%에서 5.3%로, 과학이 2.7%에서 4.2%로, 스포츠가 2.3%에서 2.6%로 비율이 좀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가 38.7%에서 18.9%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정치가 25.2%에서 24.2%로, 문화가 4.5%에서 4.2%로, 사회/범죄가 8.1%에서 5.8%로, 관광/여행이 7.2%에서 2.6%로 비율이 좀 떨어졌다. 나머지는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가 10%에서 51.2%로 외교가

13.3%에서 20.9%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사회/범죄가 3.3%에서 7.0%로, 보건/복지가 6.7%에서 9.3%로, 과학은 0에서 2.3%로, 기타도 0.0%에서 2.3%로 비율이 좀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가 20%에서 2.3%로, 문화가 23.3%에서 0.0%로, 관광/여행이 10.0%에서 0.0%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국방이 10.0%에서 4.7%로, 과학이 3.3%에서 0.0%로 비율이 좀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가 0.0%에서 37.5%로, 국방이 0.0%에서 18.8%로, 과학이 0.0%에서 6.3%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문화가 44.4%에서 18.8%로, 과학이 22.2%에서 6.3%로, 사회/범죄가 11.1%에서 0.0%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외교와 경제가 다 11.1%에서 6.3%로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어 각 신문사별로 사드배치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의 기사주제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신문인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의 경우, 통계적으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기사 주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신문인 <광명일보>는 사드배치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 기사 주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의 중국에 대한 기사 주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24 >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기사주제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국 소계		중국 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정치	113 (24.7)	88 (22.4)	3 (7.7)	28 (47.5)	116 (23.4)	116 (25.7)
외교	31 (6.8)	71 (18.1)	5 (12.8)	10 (16.9)	36 (7.3)	81 (17.9)
경제	160 (35.0)	65 (16.5)	7 (17.9)	2 (3.4)	167 (33.7)	67 (14.8)
문화	26 (5.7)	14 (3.6)	11 (28.2)	3 (5.1)	37 (7.5)	17 (3.8)
국방	30 (6.6)	70 (17.8)	3 (7.7)	5 (8.5)	33 (6.7)	75 (16.6)
사회/범죄	41 (9.0)	26 (6.6)	2 (5.1)	3 (5.1)	43 (8.7)	29 (6.4)
보건/복지	2 (0.4)	6 (1.5)	2 (5.1)	4 (6.8)	4 (0.8)	10 (2.2)
관광/여행	19 (4.2)	10 (2.5)	3 (7.7)	0 (0.0)	22 (4.4)	10 (2.2)
환경	17 (3.7)	14 (3.6)	0 (0.0)	0 (0.0)	17 (3.4)	14 (3.1)
과학	8 (1.8)	15 (3.8)	3 (7.7)	1 (1.7)	11 (2.2)	16 (3.5)
스포츠	8 (1.8)	13 (3.3)	0 (0.0)	2 (3.4)	8 (1.6)	15 (3.3)
기타	2 (0.4)	1 (0.3)	0 (0.0)	1 (1.7)	2 (0.4)	2 (0.4)
합계	457 (100.)	393 (100.0)	39 (100.0)	59 (100.0)	496 (100.0)	452 (100.0)

<표25>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기사 주제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정치	57 (24.3)	42 (20.7)	56 (25.2)	46 (24.2)	3 (10.0)	22 (51.2)	0 (0.0)	6 (37.5)
외교	23 (9.8)	43 (21.2)	8 (3.6)	28 (14.7)	4 (13.3)	9 (20.9)	1 (11.1)	1 (6.3)
경제	74 (31.5)	29 (14.3)	86 (38.7)	36 (18.9)	6 (20.0)	1 (2.3)	1 (11.1)	1 (6.3)
문화	16 (6.8)	6 (3.0)	10 (4.5)	8 (4.2)	7 (23.3)	0 (0.0)	4 (44.4)	3 (18.8)
국방	23 (9.8)	43 (21.2)	7 (3.2)	27 (14.2)	3 (10.0)	2 (4.7)	0 (0.0)	3 (18.8)
사회/ 범죄	23 (9.8)	15 (7.4)	18 (8.1)	11 (5.8)	1 (3.3)	3 (7.0)	1 (11.1)	0 (0.0)
보건/ 복지/	0 (0.0)	1 (0.5)	2 (0.9)	5 (2.6)	2 (6.7)	4 (9.3)	0 (0.0)	0 (0.0)
관광/ 여행	3 (1.3)	5 (2.5)	16 (7.2)	5 (2.6)	3 (10.0)	0 (0.0)	0 (0.0)	0 (0.0)
환경	10 (4.3)	4 (2.0)	7 (3.2)	10 (5.3)	0 (0.0)	0 (0.0)	0 (0.0)	0 (0.0)
과학	2 (0.9)	7 (3.4)	6 (2.7)	8 (4.2)	1 (3.3)	0 (0.0)	2 (22.2)	1 (6.3)
스포츠	3 (1.3)	8 (3.9)	5 (2.3)	5 (2.6)	0 (0.0)	1 (2.3)	0 (0.0)	1 (6.3)
기타	1 (0.4)	0 (0.0)	1 (0.5)	1 (0.5)	0 (0.0)	1 (2.3)	0 (0.0)	0 (0.0)
합계	235 (100.0)	203 (100.0)	222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한겨레> : $X^2=48.326$, $df=11$, $p<.05$ / <조선일보> $X^2=51.951$, $df=11$, $p<.05$

<인민일보> : $X^2=33.550$, $df=10$, $p<.05$ / <광명일보> $X^2=10.326$, $df=7$, $p>.05$

3) <연구 문제 3>과 관련 (보도 태도)

1. 보도 태도

(1) 각 나라별 보도 태도

다음은 4개 신문사별로 기사의 보도 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먼저,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기사를 모두 합한 전체 기사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기사 비율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립'이 34.3%, '긍정적' 기사 비율이 25.2%로 나타나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부정적 39.4%, 중립 36.0%, 긍정 24.6% 순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언론은 부정적 50.0%, 긍정 30.6%, 중립 20.4%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언론의 경우 부정적인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 비율이 전체 평균치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중국 언론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많았다. 또한, 중국 신문의 경우 중립적 기사 비율도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다시 세부적으로 각 언론사별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한겨레> 신문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가 23.7%로, 중립적인 태도가 34.5%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중립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인민일보>가 부정적인 태도가 49.3%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광명일보>가 긍정적인 태도 44.0%로, 부정적인 태도 48.0%로, 많이 나타났다.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각 신문사별 보도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X^2=21.166$, $df=6$, $p<.05$).

<표 26 > 각 나라 언론사별 보도 태도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 일보	한국 소계	인민 일보	광명 일보	중국 소계	전체
긍정적	104 (23.7)	105 (25.5)	209 (24.6)	19 (26.0)	11 (44.0)	30 (30.6)	239 (25.2)
중립적	151 (34.5)	155 (37.6)	306 (36.0)	18 (24.7)	2 (0.8)	20 (20.4)	326 (34.3)
부정적	183 (41.8)	152 (36.9)	335 (39.4)	36 (49.3)	12 (48.0)	48 (49.0)	383 (40.5)
합계	438 (100.0)	412 (100.0)	850 (100.0)	73 (100.0)	25 (100.0)	98 (100.0)	948 (100.0)

X²=21.166, df=6, p<.05

(2) 시기별 보도 태도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27 >와 같다.

먼저, 각 나라별로 시기별 보도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긍정적 기사는 28.7%에서 19.8%로 낮아졌고, 부정적 기사가 38.1%에서 41.0%로 약간 높아졌고, 중립은 33.3%에서 39.2%로 조금 높아졌다.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부정적 기사 비율이 23.1%에서 66.1%로 크게 높아졌고, 긍정적 기사 비율이 56.4%에서 13.6%로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중립적인 기사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에 보도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8 >과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 기사가 26.0%에서 21.2%로 줄었고, 중립적 기사는 29.8%에서 39.9%로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적 기사는 44.3%에서 38.9%로 낮아졌다. <조선일보>의 경우 긍정적인 기사는 31.5%에서 18.4%로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진 반면 부정적인 기사가 31.5%에서 43.2%로 높아졌다. 중립적인 기사는 36.9%에서 38.4%에서 비율이 약간 떨어졌다.

중국 언론인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인 보도태도

가 53.3%에서 7.0%로 그 비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고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23.3%에서 67.4%로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광명일보>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인 태도가 66.7%에서 31.3%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부정적인 태도는 22.2%에서 62.5%로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각 나라별 보도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국 소계		중국 소계		합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긍정적	131 (28.7)	78 (19.8)	22 (56.4)	8 (13.6)	153 (30.9)	86 (19)
중립적	152 (33.3)	154 (39.2)	8 (20.5)	12 (20.3)	160 (32.3)	166 (36.7)
부정적	174 (38.1)	161 (41.0)	9 (23.1)	39 (66.1)	183 (36.9)	200 (44.3)
합계	457 (100.0)	393 (100.0)	39 (100.0)	59 (100.0)	496 (100.0)	452 (100.0)

<표 28> 사드배치 이전과 이후 각 나라 언론사별 보도 태도 (단위 : 보도 건수, ()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		광명일보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긍정적	61 (26.0)	43 (21.2)	70 (31.5)	35 (18.4)	16 (53.3)	3 (7.0)	6 (66.7)	5 (31.3)
중립적	70 (29.8)	81 (39.9)	82 (36.9)	73 (38.4)	7 (23.3)	11 (25.6)	1 (11.1)	1 (6.3)
부정적	104 (44.3)	79 (38.9)	70 (31.5)	82 (43.2)	7 (23.3)	29 (67.4)	2 (22.2)	10 (62.5)
합계	235 (100.0)	203 (100.0)	222 (100.0)	190 (100.0)	30 (100.0)	43 (100.0)	9 (100.0)	16 (100.0)

<한겨레>: $X^2=5.021$, $df=2$, $p>.05$ / <조선일보>: $X^2=10.716$, $df=2$, $p<.05$

<인민일보> : $X^2=21.598$, $df=2$, $p<.05$ / <광명일보>: $X^2=4.996$, $df=1$, $p<.05$

이와 같은 신문사들의 시기별 보도태도 차이는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3개의 신문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신문인 <한겨레> 신문은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광명일보>는 사드배치

결정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사드 배치'는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광명일보> 보도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기사 주제별 보도태도

(1) 각 나라별 기사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다음은 기사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를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9>, <표30>, <표 31>와 같다.

한국 언론 기사와 중국 언론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보도태도의 경우 경제 (29.3%), 정치 (15.9%), 외교 (11.7%), 문화 (10.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관광/여행 (8.4%), 국방 (7.9%), 과학 (7.1%), 스포츠 (4.2%), 사회/범죄/자연 재해 (3.3%) 순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보도태도의 경우, 정치 (30.4%), 경제 (26.1%), 국방 (14.1%), 외교 (8.9%), 문화 (6.1%), 사회/범죄/자연 재해 (5.5%), 보건/복지/건강 (1.8%), 과학 (1.5%), 관광/여행, 환경 (각각 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경제 (36.8%), 정치 (24.8%), 외교 (15.7%), 사회/범죄/자연 재해 (12%), 국방 (11.2%)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환경 (7.3%), 보건/복지/건강 (5.0%), 관광/여행 (2.6%), 문화 (2.3%) 과학 (1.3%)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경제 (30.6%), 정치 (17.2%), 외교 (12.9%) 기사에서 긍정적인 보도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문화 (6.2%), 국방 (8.6%), 관광/여행 (8.1%), 과학 (7.2%), 스포츠 (4.3%), 사회/범죄/자연 재해 (3.8%)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30.1%), 경제 (26.8%), 국방 (15.0%)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외교 (9.2%), 문화 (5.9%), 사회/범죄/자연 재해 (4.9%), 스포츠 (3.3%), 과학 (1.6%), 보건/복지/건강과 관광/여행과 환경(각각 1.0%)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경제 (41.8%), 정치 (21.8%) 외교 (14.0%), 사회/범죄/자연 재해

(13.1%), 국방 (10.7%)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는 환경 (8.4%), 보건/복지/건강 (5.7%), 문화 (2.7%), 관광/여행 (2.7%), 과학 (0.9%), 스포츠 (0.6%)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언론은 문화 (40.0%), 경제 (20.0%), 관광/여행 (10.0%) 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정치 (6.7%), 외교와 국방(각각 3.3%), 보건/복지/건강 (6.7%), 과학 (6.7%), 스포츠 (3.3%)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35.0%), 경제 (15.0%), 문화 (10.0%), 사회/범죄/자연 재해와 보건/복지/건강 (각각 15.0%)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외교 (5.0%), 스포츠 (5.0%)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45.8%), 외교 (27.1%), 국방 (14.6%)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사회/범죄/자연 재해와 과학 (4.2%), 관광/여행 (2.1%)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보도 태도는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 신문의 경우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사회/범죄/자연 재해, 보건/복지/건강, 환경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관광/여행, 과학, 스포츠의 경우 긍정적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 신문의 경우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분야 긍정적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별로 비교 해 보면 <한겨레>는 국방, 사회/범죄/자연 재해 분야, <조선일보>는 외교, 환경 분야,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분야, <광명일보>는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리고 <한겨레>는 정치, 외교, 국방 분야, <조선일보>는 외교, 환경 분야, <인민일보>는 문화,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분야, <광명일보>는 문화, 과학, 스포츠 분야 긍정적인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표 29 > 각 나라별로 주제에 따라서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0은 %)

구분	한국 소계			중 국 소계			전체		
	긍	중	부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36 (17.2)	92 (30.1)	73 (21.8)	2 (6.7)	7 (35.0)	22 (45.8)	38 (15.9)	99 (30.4)	95 (24.8)
외교	27 (12.9)	28 (9.2)	47 (14.0)	1 (3.3)	1 (5.0)	13 (27.1)	28 (11.7)	29 (8.9)	60 (15.7)
경제	64 (30.6)	82 (26.8)	140 (41.8)	6 (20.0)	3 (15.0)	0 (0.0)	70 (29.3)	85 (26.1)	140 (36.6)
문화	13 (6.2)	18 (5.9)	9 (2.7)	12 (40.0)	2 (10.0)	0 (0.0)	25 (10.5)	20 (6.1)	9 (2.3)
국방	18 (8.6)	46 (15.0)	36 (10.7)	1 (3.3)	0 (0.0)	7 (14.6)	19 (7.9)	46 (14.1)	43 (11.2)
사회/ 범죄/ 자연 재해	8 (3.8)	15 (4.9)	44 (13.1)	0 (0.0)	3 (15.0)	2 (4.2)	8 (3.3)	18 (5.5)	46 (12.0)
보건/ 복지/ 건강	1 (0.5)	3 (1.0)	19 (5.7)	2 (6.7)	3 (15.0)	0 (0.0)	3 (1.3)	6 (1.8)	19 (5.0)
관광/ 여행	17 (8.1)	3 (1.0)	9 (2.7)	3 (10.0)	0 (0.0)	1 (2.1)	20 (8.4)	3 (0.9)	10 (2.6)
환경	0 (0.0)	3 (1.0)	28 (8.4)	0 (0.0)	0 (0.0)	0 (0.0)	0 (0.0)	3 (0.9)	28 (7.3)
과학	15 (7.2)	5 (1.6)	3 (0.9)	2 (6.7)	0 (0.0)	2 (4.2)	17 (7.1)	5 (1.5)	5 (1.3)
스포츠	9 (4.3)	10 (3.3)	2 (0.6)	1 (3.3)	1 (5.0)	0 (0.0)	10 (4.2)	11 (3.4)	2 (0.5)
기타	1 (0.5)	1 (0.3)	2 (0.6)	0 (0.0)	0 (0.0)	1 (2.1)	1 (0.4)	1 (0.3)	3 (0.8)
합계	209 (100.0)	306 (100.0)	335 (100.0)	30 (100.0)	20 (100.0)	48 (100.0)	239 (100.0)	326 (100.0)	383 (100.0)

<표 30 > 한국 언론사별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조선일보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20 (19.2)	39 (25.8)	40 (21.9)	16 (15.2)	53 (34.2)	33 (21.7)
외교	23 (22.1)	25 (16.6)	18 (9.8)	4 (3.8)	3 (1.9)	29 (19.1)
경제	29 (27.9)	32 (21.2)	103 (23.5)	35 (33.3)	50 (32.3)	37 (24.3)
문화	7 (6.7)	7 (4.6)	8 (4.4)	6 (5.7)	11 (7.1)	1 (0.7)
국방	10 (9.6)	31 (20.5)	25 (13.7)	8 (7.6)	15 (9.7)	11 (7.2)
사회/범죄/ 자연 재해	2 (1.9)	10 (6.6)	26 (14.2)	6 (7.6)	5 (3.2)	18 (11.8)
보건/복지/ 건강	0 (0.0)	0 (0.0)	1 (0.5)	1 (1.0)	3 (1.9)	3 (2.0)
관광/여행	1 (1.0)	1 (0.7)	6 (3.3)	16 (15.2)	2 (1.3)	3 (2.0)
환경	0 (0.0)	0 (0.0)	14 (7.7)	0 (0.0)	3 (1.9)	14 (9.2)
과학	6 (5.8)	1 (0.7)	2 (1.1)	9 (8.6)	4 (2.6)	1 (0.7)
스포츠	5 (4.8)	5 (3.3)	1 (0.5)	4 (3.8)	5 (3.2)	1 (0.7)
기타	1 (1.0)	0 (0.0)	1 (0.0)	0 (0.0)	1 (0.6)	1 (0.7)
합계	104 (100.0)	151 (100.0)	183 (100.0)	105 (100.0)	155 (100.0)	152 (100.0)

<한겨레> : $X^2=70.579a$, $df=22$, $p<.05$ / <조선일보> $X^2=119.369a$, $df=22$, $p<.05$

<표 31 > 중국 언론사별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단위: 보도건수, 0은 %)

구분	인민일보			광명일보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1 (5.3)	7 (38.9)	17 (47.2)	1 (10.0)	0 (0.0)	5 (41.7)
외교	1 (5.3)	1 (5.6)	11 (30.6)	0 (0.0)	0 (0.0)	2 (16.7)
경제	5 (26.3)	2 (11.1)	0(0.0)	1(10.0)	1(50.0)	0(0.0)
문화	6 (31.6)	1 (5.6)	0(0.0)	6(50.0)	1(50.0)	0(0.0)
국방	1 (5.3)	0 (0.0)	4(11.1)	0(0.0)	0(0.0)	3(25.0)
사회/범죄/ 자연 재해	0 (0.0)	3 (16.7)	1 (2.8)	0 (0.0)	0 (0.0)	1 (8.3)
보건/복지/ 건강	2 (10.5)	3 (16.7)	0 (0.0)	0 (0.0)	0 (0.0)	0 (0.0)
관광/여행	3 (15.8)	0 (0.0)	1 (2.8)	0 (0.0)	0 (0.0)	0 (0.0)
환경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학	0 (0.0)	0 (0.0)	1 (2.8)	2 (20.0)	0 (0.0)	1 (8.3)
스포츠	0 (0.0)	1 (5.6)	0 (0.0)	1 (1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합계	19 (100.0)	18 (100.0)	36 (100.0)	11 (100.0)	2 (100.0)	12 (100.0)

<인민일보> : $X^2=59.913a$, $df=20$, $p<.05$ / <광명일보> $X^2=5.556a$, $df=7$, $p<.05$

(2)시기별 기사 주제에 따른 보도 태도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기사 주제에 따른 보도태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32>,<표33>,<표 34>와 같다.

먼저,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외교가 9.9%에서 17.1%로, 국방이 6.9에서 11.5%로, 과학이 5.3%에서 10.3%로, 스포츠가 3.1%에서 6.4%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많아졌다. 반면 경제는 32.1%에서 28.2%로, 문화는 7.6%에서 3.8%로, 관광/여행은 12.2%에서 1.3%로, 정치는 17.6%에서 16.7%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6.6%에서 11.7%로, 국방은 9.9%에서 20.1%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3.3%에서

6.5%로, 보건/복지/건강은 0.0%에서 1.9%로, 관광은 0.7%에서 1.3%로, 스포츠는 2.6%에서 3.9%로 독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정치는 32.9%에서 27.3%로, 경제는 34.9%에서 18.8%로, 문화는 7.2%에서 4.5%로, 환경은 1.3%에서 0.6%로 독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후에는 정치는 0.0%에서 25.0%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0.0%에서 16.7%로, 스포츠는 0.0%에서 12.6%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45.5%에서 12.5%로, 문화는 45.5%에서 25.0%로, 관광/여행은 13.6%에서 0.0%로, 국방은 4.5%에서 0.0%로, 외교는 4.5%에서 0.0%로, 과학은 9.1%에서 0.0%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12.5%에서 50.0%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2.5%에서 16.7%로, 스포츠는 0.0%에서 0.3%로 독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외교는 12.5%에서 0.0%로, 경제는 25.0%에서 8.3%로, 문화는 12.5%에서 8.3%로, 보건/복지/건강은 25.0%에서 8.3%로 독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22.2%에서 51.3%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33.3%에서 25.6%로, 국방은 22.2%에서 12.8%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1.1%에서 0.0%로, 과학은 11.1%에서 2.6%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의 언론사별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주제에 따라 보도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35>, <표 36>, <표 37>, <표 38>와 같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는 18%에서 20.9%로, 외교는 19.7%에서 25.6%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6.0%에서 23.0%로, 과학은 1.6%에서 11.6%로, 스포츠는 3.3%에서 7.0%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는 32.8%에서 20.9%로, 문화는 9.8%에서 2.3%로, 국방은 9.8%에서 9.3%로, 관광/여행은 16%에서 0.0%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12.9%에서 19.8%로, 국방은 17.1%에서 23.5%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5.7%에서 7.4%로, 과학은 0.0%에서 1.2%로, 스포츠는 1.4%에서 4.9%로 독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정치는 30.0%에서 18.5%로, 경제는 24.3%에서 18.5%로, 문화는 7.1%에서 2.5%로, 관광은 14%에서 0.0%로 독립

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1.9%에서 19.8%로, 국방은 4.8%에서 25.3%로, 보건/복지/건강은 1.4%에서 2.4%로, 환경은 7.1%에서 11.0%로, 과학은 0.0%에서 1.2%로, 스포츠는 0.0%에서 1.2%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정치는 24.0%에서 19.0%로, 경제는 35.6%에서 6.3%로, 문화는 4.8%에서 3.8%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8.6%에서 6.1%로, 관광/여행은 1.4%에서 2.4%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경제는 31.4%에서 37.1%로, 국방은 4.3%에서 14.3%로, 과학은 0.0%에서 5.5%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정치는 17.1%에서 11.4%로, 외교는 14.0%에서 8.6%로, 관광/여행은 21.4%에서 2.9%로, 보건/복지/건강은 1.4%에서 0.0%로, 환경은 2.4%에서 1.4%로, 스포츠는 3.7%에서 2.7%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국방은 3.7%에서 16.4%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2%에서 5.5%로, 보건/복지/건강은 0.0%에서 4.1%로, 관광/여행은 0.0%에서 2.4%로, 외교는 1.2%에서 2.7%로, 과학은 0.0%에서 5.5%로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43.9%에서 19.2%로, 문화는 7.3%에서 6.8%로, 정치는 35.4%에서 32.9%로, 환경은 2.4%에서 1.4%로, 스포츠는 3.7%에서 2.7%로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8.6%에서 28.0%로, 국방은 1.4%에서 12.2%로, 정치는 21.4%에서 22.0%로, 문화는 0.0%에서 1.2%로, 보건/복지/건강은 1.4%에서 2.4%로, 관광/여행은 1.4%에서 2.4%로, 과학은 0.0%에서 1.2%로, 스포츠는 0.0%에서 1.2%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40.0%에서 11.0%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8.6%에서 6.1%로, 환경은 7.1%에서 1.4%로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정치는 0.0%에서 33.3%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0.0%에서 66.7%로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6.3%에서 0.0%로, 경제는 31.3%에서 0.0%로, 문화는 37.5%에서 0.0%로, 국방은 6.3%에서 0.0%로, 관광/여행은 18.8%에서 0.0%로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14.3%에서 54.5%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14.3%에서 18.2%로, 스포츠는 0.0%에서 9.1%로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14.3%에서 0.0%로, 경제는 14.3%에서 9.1%로, 문화

는 14.3%에서 0.0%로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경치는 28.6%에서 51.7%로, 외교는 28.6%에서 31.0%로, 보건/복지/건강은 0.0%에서 3.4%로, 관광/여행은 0.0%에서 3.4%로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국방은 28.6%에서 6.9%로, 과학은 14.3%에서 0.0%로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경치는 0.0%에서 20.0%로, 경제는 0.0%에서 20.0%로, 스포츠는 0.0%에서 20.0%로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문화는 66.7%에서 40.0%로, 과학은 33.3%에서 0.0%로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경제는 100.0%에서 0.0%로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문화는 0.0%에서 100.0%로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경치는 0.0%에서 50.0%로, 국방은 0.0%에서 30.0%로, 과학은 0.0%에서 10.0%로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50.0%에서 10.0%로,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50.0%에서 0.0%로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신문사들의 시기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과 중립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인 보도 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립적과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사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보도 주제에 따라 보도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32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한국의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0은 %)

구분	한국 소계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23 (17.6)	50 (32.9)	40 (23.0)	13 (16.7)	42 (27.3)	33 (20.5)
외교	13 (9.9)	10 (6.6)	8 (4.6)	14 (17.9)	18 (11.7)	39 (24.2)
경제	42 (32.1)	53 (34.9)	65 (37.4)	22 (28.2)	29 (18.8)	14 (8.7)
문화	10 (7.6)	11 (7.2)	5 (2.9)	3 (3.8)	7 (4.5)	4 (2.5)
국방	9 (6.9)	15 (9.9)	6 (3.4)	9 (11.5)	31 (20.1)	30 (18.6)
사회/범죄/자연 재해	5 (3.8)	5 (3.3)	31 (17.8)	3 (3.8)	10 (6.5)	13 (8.1)
보건/복지/건강	1 (0.8)	0 (0.0)	1 (0.6)	0 (0.0)	3 (1.9)	3 (1.9)
관광/여행	16 (12.2)	1 (0.7)	2 (1.1)	1 (1.3)	2 (1.3)	7 (4.3)
환경	0 (0.0)	2 (1.3)	15 (8.6)	0 (0.0)	1 (0.6)	13 (8.1)
과학	7 (5.3)	0 (0.0)	1 (0.6)	8 (10.3)	5 (3.2)	2 (1.2)
스포츠	4 (3.1)	4 (2.6)	0 (0.0)	5 (6.4)	6 (3.9)	2 (1.2)
기타	1 (0.8)	1 (0.7)	0 (0.0)	0 (0.0)	0 (0.0)	1 (0.6)
합계	131 (100.0)	152 (100.0)	174 (100.0)	78 (100.0)	154 (100.0)	161 (100.0)

<표 33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중국의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0은 %)

구분	중국 소계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0 (0.0)	1 (12.5)	2 (22.2)	2 (25.0)	6 (50.0)	20 (51.3)
외교	1 (4.5)	1 (12.5)	3 (33.3)	0 (0.0)	0 (0.0)	10 (25.6)
경제	5 (45.5)	2 (25.0)	0 (0.0)	1 (12.5)	1 (8.3)	0 (0.0)
문화	10 (45.5)	1 (12.5)	0 (0.0)	2 (25.0)	1 (8.3)	0 (0.0)
국방	1 (4.5)	0 (0.0)	2 (22.2)	0 (0.0)	0 (0.0)	5 (12.8)
사회/범죄/자연 재해	0 (0.0)	1 (12.5)	1 (11.1)	2 (25.0)	2 (16.7)	0 (0.0)
보건/복지/건강	0 (0.0)	2 (25.0)	0 (0.0)	0 (0.0)	1 (8.3)	0 (0.0)
관광/여행	3 (13.6)	0 (0.0)	0 (0.0)	0 (0.0)	0 (0.0)	0 (0.0)
환경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학	2 (9.1)	0 (0.0)	1 (11.1)	0 (0.0)	0 (0.0)	1 (2.6)
스포츠	0 (0.0)	0 (0.0)	0 (0.0)	1 (12.5)	1 (8.3)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합계	22 (100.0)	8 (100.0)	9 (100.0)	8 (100.0)	12 (100.0)	39 (100.0)

<표 34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두 나라의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0은 %)

구분	합계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23 (15.0)	51 (31.9)	42 (23.0)	15 (17.4)	48 (28.9)	53 (26.5)
외교	14 (9.2)	11 (6.9)	11 (6.0)	14 (16.3)	18 (10.8)	49 (24.5)
경제	47 (30.7)	55 (34.4)	65 (35.5)	23 (26.7)	30 (18.1)	14 (7.0)
문화	20 (13.1)	12 (7.5)	5 (2.7)	5 (5.8)	8 (4.8)	4 (2.0)
국방	10 (6.5)	15 (9.4)	8 (4.4)	9 (10.5)	31 (18.7)	35 (17.5)
사회/범죄/자연 재해	5 (3.3)	6 (3.8)	32 (17.5)	5 (5.8)	12 (7.2)	13 (6.5)
보건/복지/건강	1 (0.7)	2 (1.3)	1 (0.5)	0 (0.0)	4 (2.4)	3 (1.5)
관광/여행	19 (12.4)	1 (0.6)	2(1.1)	1 (1.2)	2 (1.2)	7 (3.5)
환경	0 (0.0)	2 (1.3)	15 (8.2)	0 (0.0)	1 (0.6)	13 (6.5)
과학	9 (5.9)	0 (0.0)	2 (1.1)	8 (9.3)	5 (3.0)	3 (1.5)
스포츠	4 (2.6)	4 (2.5)	0 (0.0)	6 (7.0)	7 (4.2)	2 (1.0)
기타	1 (0.7)	0 (0.0)	0 (0.0)	0 (0.0)	0 (0.0)	2 (1.0)
합계	153 (100.0)	160 (100.0)	183 (100.0)	86 (100.0)	166 (100.0)	200 (100.0)

<표 35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한겨레>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0은 %)

구분	한겨레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11 (18.0)	21 (30.0)	25 (24.0)	9 (20.9)	18 (18.5)	15 (19)
외교	12 (19.7)	9 (12.9)	2 (1.9)	11 (25.6)	16 (19.8)	16 (20.3)
경제	20 (32.8)	17 (24.3)	37 (35.6)	9 (20.9)	15 (18.5)	5 (6.3)
문화	6 (9.8)	5 (7.1)	5 (4.8)	1 (2.3)	2 (2.5)	3 (3.8)
국방	6 (9.8)	12 (17.1)	5(4.8)	4 (9.3)	19 (23.5)	20 (25.3)
사회/범죄/ 자연 재해	1 (1.6)	4 (5.7)	18 (17.3)	1 (2.3)	6 (7.4)	8 (10.1)
보건/복지/ 건강	0 (0.0)	0 (0.0)	0 (0.0)	0 (0.0)	0 (0.0)	1 (1.3)
관광/여행	1 (1.6)	1 (1.4)	1 (1.0)	0 (0.0)	0 (0.0)	5 (6.3)
환경	0 (0.0)	0 (0.0)	10 (9.6)	0 (0.0)	0 (0.0)	4 (5.1)
과학	1 (1.6)	0 (0.0)	1 (1.0)	5 (11.6)	1 (1.2)	1 (1.3)
스포츠	2 (3.3)	1 (1.4)	0 (0.0)	3 (7.0)	4 (4.9)	1 (1.3)
기타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61 (100.0)	70 (100.0)	104 (100.0)	43 (100.0)	81 (100.0)	79 (100.0)

<한겨레> : 긍정 : $X^2=10.452$, $df=9$, $p>.05$ / 중립: $X^2=8.627a$, $df=8$ $p>.05$ /
부정: $X^2=55.984a$, $df=10$, $p<.05$

<표 36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조선일보>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0은 %)

구분	조선일보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12 (17.1)	29 (35.4)	15 (21.4)	4 (11.4)	24 (32.9)	18 (22.0)
외교	1 (1.4)	1 (1.2)	6 (8.6)	3 (8.6)	2 (2.7)	23 (28.0)
경제	22 (31.4)	36 (43.9)	28 (40.0)	13 (37.1)	14 (19.2)	9 (11.0)
문화	4 (5.7)	6 (7.3)	0 (0.0)	2 (5.7)	5 (6.8)	1 (1.2)
국방	3 (4.3)	3 (3.7)	1 (1.4)	5 (14.3)	12 (16.4)	10 (12.2)
사회/범죄/ 자연 재해	4 (5.7)	1 (1.2)	13 (18.6)	2 (5.7)	4 (5.5)	5 (6.1)
보건/복지/ 건강	1 (1.4)	0 (0.0)	1 (1.4)	0 (0.0)	3 (4.1)	2 (2.4)
관광/여행	15 (21.4)	0 (0.0)	1 (1.4)	1 (2.9)	2 (2.7)	2 (2.4)
환경	0 (0.0)	2 (2.4)	5 (7.1)	0 (0.0)	1 (1.4)	9 (11.0)
과학	6 (8.6)	0 (0.0)	0 (0.0)	3 (8.6)	4 (5.5)	1 (1.2)
스포츠	2 (2.9)	3 (3.7)	0 (0.0)	2 (5.7)	2 (2.7)	1 (1.2)
기타	0 (0.0)	1 (1.2)	0 (0.0)	0 (0.0)	0 (0.0)	1 (1.2)
합계	70 (100.0)	82 (100.0)	70 (100.0)	35 (100.0)	73 (100.0)	82 (100.0)

<조선일보>: 긍정: $X^2=13.197a$, $df=9$, $p>.05$ / 중립: $X^2=27.881a$, $df=11$, $p<.05$
부정: $X^2=36.001a$, $df=11$, $p<.05$

한국 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과 중립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인 보도 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립적과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사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보도 주제에 따라 보도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37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인민일보>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0은 %)

구분	인민일보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0 (0.0)	1 (14.3)	2 (28.6)	1 (33.3)	6 (54.5)	15 (51.7)
외교	1 (6.3)	1 (14.3)	2 (28.6)	0 (0.0)	0 (0.0)	9 (31.0)
경제	5 (31.3)	1 (14.3)	0 (0.0)	0 (0.0)	1 (9.1)	0 (0.0)
문화	6 (37.5)	1 (14.3)	0(0.0)	0 (0.0)	0 (0.0)	0 (0.0)
국방	1 (6.3)	0 (0.0)	2 (28.6)	0 (0.0)	0 (0.0)	2 (6.9)
사회/범죄/자연재해	0 (0.0)	1 (14.3)	0 (0.0)	2 (66.7)	2 (18.2)	0 (0.0)
보건/복지/건강	0 (0.0)	2 (28.6)	0 (0.0)	0 (0.0)	1 (9.1)	1 (3.4)
관광/여행	3 (18.8)	0 (0.0)	0 (0.0)	0 (0.0)	0 (0.0)	1 (3.4)
환경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학	0 (0.0)	0 (0.0)	1 (14.3)	0 (0.0)	0 (0.0)	0 (0.0)
스포츠	0 (0.0)	0 (0.0)	0 (0.0)	0 (0.0)	1 (9.1)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3.4)
합계	16 (100.0)	7 (100.0)	7 (100.0)	3 (100.0)	11 (100.0)	29 (100.0)

<인민일보> : 긍정: X²=19.000, df=6, p<.05 / 중립: X²=6.679a, df=6, p>.05/

부정:X²=7.903a, df=6, p>.05

<표 38 >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서 <광명일보> 보도 태도
(단위: 보도 건수, 0은 %)

구분	광명일보					
	이전			이후		
	긍	중	부	긍	중	부
정치	0 (0.0)	0 (0.0)	0 (0.0)	1 (20.0)	0 (0.0)	5 (50.0)
외교	0 (0.0)	0 (0.0)	1 (50.0)	0 (0.0)	0 (0.0)	1 (10.0)
경제	0 (0.0)	1 (100.0)	0 (0.0)	1 (20.0)	0 (0.0)	0 (0.0)
문화	4 (66.7)	0 (0.0)	0 (0.0)	2 (40.0)	1 (100.0)	0 (0.0)
국방	0 (0.0)	0 (0.0)	0 (0.0)	0 (0.0)	0 (0.0)	3 (30.0)
사회/범죄/자연재해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보건/복지/건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관광/여행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환경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학	2 (33.3)	0 (0.0)	0 (0.0)	0 (0.0)	0 (0.0)	1 (10.0)
스포츠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6 (100.0)	1 (100.0)	2 (100.0)	5 (100.0)	1 (100.0)	10 (100.0)

<광명일보>: 긍정: $X^2=5.622$, $df=4$, $p>.05$ / 중립: $X^2=2.000$, $df=1$, $p>.05$
부정: $X^2=8.400$, $df=4$, $p>.05$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중립과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긍정적, 중립적과 부정적인 보도태도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중 언론 보도에 나타난 한중 국가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 그리고 중국의 <인민일보>, <광명일보>에 보도된 양국과 관련된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형태, 기사의 주제, 기사의 보도태도 등을 비교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배치 전이 배치 후보다 많았고,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전보다 사드 배치 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드배치 이후에 중국 언론이 한국에 비교적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언론사별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중국 신문사들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 한중 신문에 보도된 기사형태는 신문들 간에 차이를 보였다.

한중 양국 언론에 관련 보도는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유형을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획/특집 기사, 사설/칼럼, 인터뷰, 독자투고, 해설,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스트레이트, 기획/특집, 사설/칼럼, 인터뷰, 독자투고, 해설,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언론은 스트레이트, 독자투고, 기획/특집, 해설,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나라의 기사를 비교해 볼 때 한중 언론 모두가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언론의 경우 기획/특집 기사를 중국 신문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국 언론 기사유형은 중국보다 더 다양하게 나왔다.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와 <인민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조선일보>와 <광명일보>는 기획/특집 기사를 전체 평균치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4개 신문 중에 독자투고 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 스트레이트 비율이 5.5% 정도 높아지고, 인터뷰와 사설/칼럼의 비율도 조금씩 높아졌다. 근데 해설은 1.8%, 독자투고, 독자투고는 (각각) 2.2% 정도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에 스트레이트가 17.4%로, 해설은 15.4%로, 기획/특집, 인터뷰는(각각) 14.3%, 독자투고는 2.4% 정도 낮아졌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의 경우는 해설은 3.4% , 독자투고도 0.4% , 스트레이트가 0.3% 정도 떨어졌다. 근데 인터뷰는 1.7% , 기획/특집은 1.5%, 사설/칼럼은 0.8% 정도 많아졌다. <조선일보>의 기사 유형은 기획/특집은 5.9%, 독자투고는 4.1%, 기타는 0.9%, 사설/칼럼은 0.6%, 인터뷰는 0.5% 정도 떨어졌다. 반면에는 스트레이트는 11.8% 정도 많아졌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인민일보>의 경우 스트레이트가 6.0%, 해설이 1.0% 정도 떨어졌다. 독자투고가 4.7%, 기타 2.3% 정도 많아졌다. 기획/특집, 사설/칼럼, 인터뷰는 다 변화가 없다. <광명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 비율이 5.6%, 독자투고는 3.1% 정도 떨어졌다. 기획/특집은 18.8% 많아졌다. 해설, 사설/칼럼, 인터뷰는 다 변화가 없다.

한국 신문인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기사 유형이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와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사드 배치 이후 기사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의 기사 유형에 영향을 미쳤으나 중국 언론의 기사 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 한중 신문에 보도된 기사 주제 내용은 신문들 간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의 주제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정치’, ‘외교’, ‘국방’, ‘사회/범죄/재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 ‘과학’, ‘스포츠’, ‘보건/복지/건강’ 등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별로 기사주제를 살펴보면, <한겨레>는 경제, 정치, 외교, 국방,

사회/범죄/자연재해 순으로 많았고, 문화, 환경, 스포츠, 과학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경제, 정치 순으로 많았고, 외교, 국방, 사회/범죄/자연재해, 관광/여행, 환경, 과학, 스포츠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국방, 보건/복지/건강, 사회/범죄/자연재해, 관광/여행, 과학, 스포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명일보>는 정치, 문화, 과학, 국방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외교, 경제, 사회/범죄/자연재해, 스포츠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문사별 기사주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경제’를 전체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한 반면 중국 언론은 ‘정치’, ‘외교’, ‘문화’, 분야를 전체 평균치보다 많이 보도하였다.

신문별로 보면 <한겨레>는 외교, 국방, 사회/범죄 분야, <조선일보>는 경제, 관광/여행, 환경 분야,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문화, 보건/복지 분야, <광명일보>는 문화, 과학 분야를 타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한국 언론을 살펴보면, 외교는 11.3%, 국방은 11.2% 정도 기사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고, 경제는 18.5%, 정치는 2.3%, 문화는 2.1%, 사회/범죄/재난은 3.3% 정도 그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정치’는 39.8%, 외교는 4.1% 정도 높아졌고, ‘경제’는 14.5%, ‘문화’ 기사는 23.1% 정도 크게 낮아졌다. 그 외 외교, 국방, 보건/복지/건강, 스포츠는 조금 높아졌고, 과학은 조금 낮아졌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 국방(각각) 11.4%, 스포츠가 2.6%, 과학 2.5%, 관광/여행 1.2% 정도 순으로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가 17.1%, 문화는 3.8%, 정치는 3.6%, 사회/범죄는 2.4%, 환경은 2.3% 정도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가 11.1%, 국방 11%, 환경이 2.1%, 보건/복지가 1.7%, 과학 1.5%, 스포츠 0.3% 정도 비율이 좀 높아졌다. 반면에는 경제가 19.8%, 관광/여행 4.6%, 사회/범죄 2.3%, 정치 1.0%, 문화 0.3%, 정도 비율이 좀 떨어졌다. 나머지는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가 41.2%, 외교가 7.6% 정도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사회/범죄가 3.7%, 보건/복지 2.6%, 과학 ,기타(각각) 2.3% 정도 비율이 좀 높아졌다. 반면에는 문화 23.3%, 경제가 17.7%, 관광/여행10.0% 정도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국방이 5.3%, 과학 3.3% 정도 비율이 좀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정치 37.5%, 국방 18.8%, 과학 6.3% 정도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문화가 25.6%, 과학이15.9%, 사회/범죄가 11.1% 정도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외교와 경제가 다 4.8% 정도 비율이 떨어졌다. 다른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어 각 신문사별로 사드배치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의 기사주제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신문인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 중국 신문인 <인민일보>의 경우, 통계적으로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기사 주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신문인 <광명일보>는 사드배치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 기사 주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드 배치’는 한국 언론의 중국에 대한 기사 주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 한중 기사 보도 태도는 신문들 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의 기사를 모두 합한 전체 기사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면, ‘부정적’ 기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언론은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언론의 경우 부정적인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 비율이 전체 평균치와 비스하게 나타났지만, 중국 언론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많았다. 또한, 중국 신문의 경우 중립적 기사 비율도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언론사별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한겨레> 신문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중립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인민일보>가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광명

일보>가 긍정적인 태도 , 부정적인 태도 많이 나타났다.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각 신문사별 보도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나라별로 시기별 보도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긍정적 기사는8.9% 정도 낮아졌고, 부정적 기사가 2.9% 정도 약간 높아졌고, 중립은 5.9% 정도 조금 높아졌다.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부정적 기사 비율이 43% 정도 크게 높아졌고, 긍정적 기사 비율이 43.8% 정도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중립적인 기사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 기사가 4.8% 정도 줄었고 , 중립적 기사는 10.1%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부정적 기사는 5.5% 정도 낮아졌다 . <조선일보>의 경우 긍정적인 기사는 13.1% 정도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진 반면 부정적인 기사가 11.7% 정도 높아졌다. 중립적인 기사는 1.5% 정도 비율이 약간 떨어졌다.

중국 언론인 <인민일보>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인 보도태도가 46.3% 정도 그 비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고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44.1% 정도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광명일보>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긍정적인 태도가 35.4% 정도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 부정적인 태도는 40.3% 정도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신문사들의 시기별 보도태도 차이는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3개의 신문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한국 신문인 <한겨레> 신문은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 <광명일보>는 사드배치 결정 이전과 사드배치 이후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사드 배치’는 <조선일보>와 <인민일보>, <광명일보> 보도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언론 중 <한겨레>가 사드 배치 결정 전후 중국에 관한 기사 보도 태도 변화가 없지만, <조선일보>가 중국에 관한 기사 보도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 떨어지고 부정적인 기사 더 많아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중국 국가 이미지는 나빠질 수 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인민일보>와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결정 전후 한국에 관한 기사 보도 태도가 긍정적인 보도 태도가 많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보도 태도가 많이 높아졌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한국 국가 이미지는 나빠질 수 있다.

다음에 주제에 따른 보도태도에 관한 결과이다.

한국 언론 기사와 중국 언론 기사를 합한 전체 기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보도태도의 경우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관광/여행, 국방, 과학, 스포츠, 사회/범죄/자연 재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경제, 정치, 외교, 사회/범죄/자연 재해, 국방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환경,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문화, 과학 등의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이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은 경제, 정치, 외교 기사에서 긍정적인 보도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문화, 국방, 관광/여행, 과학, 스포츠, 사회/범죄/자연 재해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경제, 국방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외교, 문화, 사회/범죄/자연 재해, 스포츠, 과학, 보건/복지/건강과 관광/여행과 환경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경제, 정치, 외교, 사회/범죄/자연 재해, 국방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는 환경, 보건/복지/건강, 문화, 관광/여행, 과학, 스포츠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언론은 문화, 경제, 관광/여행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정치, 외교, 국방, 보건/복지/건강, 과학, 스포츠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범죄/자연 재해와 보건/복지/건강 순으로 중립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외교, 스포츠 중립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정치, 외교, 국방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사회/범죄/자연 재해와 과학, 관광/여행 부정적인 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보도 태도는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 신문의 경우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사회/범죄/

자연 재해, 보건/복지/건강, 환경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관광/여행, 과학, 스포츠의 경우 긍정적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국 신문의 경우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화,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분야 긍정적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별로 비교 해 보면 <한겨레>는 국방, 사회/범죄/자연 재해 분야 , <조선일보>는 외교, 환경 분야 , <인민일보>는 정치, 외교 분야, <광명일보>는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부정적인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리고 <한겨레>는 정치, 외교, 국방 분야, <조선일보>는 외교, 환경 분야 , <인민일보>는 문화,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 분야 , <광명일보>는 문화, 과학, 스포츠 분야 긍정적 기사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외교가 7.2%, 과학 5%, 국방 4.6%, 스포츠 3.3%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많아졌다. 반면 관광/여행 10.9%, 경제는 3.9%, 문화 3.8%, 정치 0.9%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 19.6%, 국방 7.1%, 관광/여행 3.0%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중국 언론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후에는 정치 25.0%로, 사회/범죄/자연 재해 16.7% , 스포츠 12.6%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33%, 문화 20.5%, 관광/여행 13.6%, 과학 9.1%, 국방 4.5%, 외교 4.5%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37.5%, 사회/범죄/자연 재해 4.1%, 스포츠는 0.3%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보건/복지/건강, 경제(각각) 16.7%, 외교는 12.5%, 문화 4.2%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29.1%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사회/범죄/자연 재해 11.1%, 국방 9.4%, 과학 8.5%, 외교는 7.7%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과학 10%, 사회/범죄/자연 재해 7%, 외교 5.9%, 스포츠 3.7% , 정치는 2.9%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에는 관광/여행 16%, 경제는 11.9%, 문화 7.5%, 국방 0.5%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6.9%, 국방 6.4%, 스포츠 3.5%, 사회/범죄/자연 재해 1.7%, 과학 1.2%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

율이 높아졌다. 관광 14%, 정치는 11.5%, 경제 5.8%, 문화 4.6%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국방 20.5%, 외교 17.9%, 환경 3.9%, 과학, 스포츠(각각)1.2%, 보건/복지/건강 1.0%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 29.3%, 사회/범죄/자연 재해 12.5%, 정치는 5%, 문화, 관광/여행(각각) 1.0%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국방 10%, 경제 5.7%, 과학 5.5%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관광/여행 18.5%, 정치는 5.7%, 외교 5.4%, 보건/복지/건강 1.4%, 환경, 스포츠(각각) 1.0% 정도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국방은 12.7%, 과학 5.5%, 사회/범죄/자연 재해 4.3%, 보건/복지/건강 4.1%, 관광/여행 2.4%, 외교 1.5%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24.7%, 정치 2.5%, 문화 1.3%, 환경, 스포츠(각각) 1.0% 정도 중립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외교는 19.4%, 국방 10.8%, 문화, 과학, 스포츠(각각) 1.2%,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각각) 1.0%, 정치 0.6%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는 29%, 사회/범죄/자연 재해 12.5%, 환경 5.7% 정도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사회/범죄/자연 재해 66.7%, 정치 33.3%로, 정도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37.5%, 경제 31.3%, 관광/여행 18.8%, 외교, 문화, 국방(각각) 6.3% 정도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40.2%, 스포츠 9.1%, 사회/범죄/자연 재해 3.9% 정도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 문화(각각) 14.3%, 경제 5.2% 정도 중립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23.1%, 보건/복지/건강, 관광/여행(각각) 3.4%, 외교 2.4% 정도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국방은 21.7%, 과학 14.3% 정도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광명일보>는 사드 배치 이후에는 정치, 경제, 스포츠(각각) 20.0% 정도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문화는 26.7%, 과학 33.3% 정도 긍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정치는 50.0%, 국방 30.0%, 과학 10.0% 정도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높아졌다. 외교는 40.0%, 사회/범죄/자연 재해는 50.0% 정도 부정적인 보도 태도 비율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신문사들의 시기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

신문인 <한겨레>의 경우,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과 중립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 주제에 따라 긍정적인 보도 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립적과 부정적인 보도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 언론 중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 관광/여행, 경제, 문화, 정치에 관한 기사는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지고 외교, 국방, 관광/여행에 관한 기사는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중국 그 분야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 반면에 중국 언론 중 사드 배치 결정 후 한국 경제, 문화, 관광/여행, 과학, 국방, 외교에 관한 기사는 긍정적인 태도 비율이 떨어지고 외교, 국방, 관광/여행에 관한 한국 기사는 부정적인 태도 비율이 높아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 갖은 지식과 태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갖게 된 한국 그 분야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신문이라는 매체에 국한되어 아쉽다. 또한 독자들에게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향후 방송과 같은 다른 매체와 함께 대중이 염두에 둔 한중 양국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卢建雯 (2011). 한국 뉴스보도에 나타난 중국 국가이미지에 관한 연구 - <조선일보>2001-2010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강현두, 주어행이, 허진 (1998). 중국 언론에 나타난 남·북한 이미지 비교분석 연구(1949~1996). [한국언론학보 43(1)], 37~75.
- 강현두, 주어행이, 허진 (1998): 중국 언론에 나타난 남북한 이미지 비교분석 연구(1949-1996).
- 김원수 (1993).《기업 이미지의 관리론》. pp140-141.
- 김기도 (1987).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실제. 서울: 나남출판.
- 김일철 (2002).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관 기관 간 공조 방안에 관한 연구.《홍보학연구》, 6권2호, 64-95.
- 김정탁, 박진서, 김소형 (2002). 미국 언론에 나타난 동북아 3국의 국가이미지 비교연구.[광고연구], 제54호, 167~189.
- 김성해, 강국진(2009).《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성해, 광대섭, 유정재, 조민규(2013). 외신이 재현하는 한국의 자화상: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외신홍보 실적 자료를 중심으로.
- 김우창 (1999).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서울:생각의 나무, p.83.
- 김유경 (2003).[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유경 (2009)은.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국가이미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연구보고서219).서울: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 고영철 (1994). 제주도 이미지의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 고영철 (2013). 한. 미의 지역일간지 기사의 다양성 비교. 《언론이 변해야, 지역이 산다》,pp181-185.
- 신호창 (2003). 미국언론에 나타난 우리나라 이미지에 관한 연구.[광고연구],60호,81~106.
- 남일우 (2015).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5(1)> 205~234.
- 노형신, 신호창, 허종욱, 박성화 (2008). 해외 언론의 한국에 대한 취재보도특성과 반영된 한국 이미지: 2006-2009년 6개국 7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 박기순 (1996). 한국기업의 해외홍보와 국가이미지: 사례와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 홍보 협회, 제28회 홍보교실 발표문.
- 반 현 (2001).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뉴욕 테러 사건의 국내 TV 뉴스 보도 사례.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제논문.
- 양승목 (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1997년 가을 통권 제17호.
- 양문석 (2001). 《수용자스키마가 미디어프레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영 (2006). 2002 한일월드컵 전후 미국언론에 제시된 한국의 이미지-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해외홍보를 위한 제언.《정책분석평가학외보》, 16권4호, 325-352.
- 오미영, 산호창 (2002).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이론, 현황 및 전략. 《홍보학연구》, 6권1호, 230-267.
- 유세경 (1998).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해외언론 보도경향과 국가. [홍보학연구 1998년], 제2호, pp.254.
- 유재웅, 진용주 (2015). 한국의 국가이미지 연구 경향-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2권 4호.
- 유재웅 (2008). <국가이미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세경 (1998).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해외언론 보도경향과 국가 이미지.[홍보학연구],제2호.
- 이도훈 (2007).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메가문화이벤트 콘셉트 도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프랙탈(fractal)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종 (2012). 국제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 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홍보학 연구], 16권3호, pp: 62-97.

- 이병종 (2010). 뉴욕타임스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변화 추이 연구. [홍보학 연구], 제14-3호 , pp:150-184.
- 이병종 (2012). 국제 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 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홍보학연구], 16권3호, 62-97.
- 이 민 (2009). 중국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이미지 연구-<인민일보>와 <북경청년보>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 (2010).《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연구: KBS, MBS 시사보다 프로그램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촉발집회’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준 (2010). 중국의 외교정책과 공공외교. [사회과학연구논총], Vo. 24, No. 0,153~191.
- 장익진 (1993).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미국, 소련, 일본, 중국 관계 뉴스분석-독자의 눈에 비친 4강의 대 한국관계 및 이미지. <언론정보 연구30>125~147.
- 조 박 (2016). 사드(THAAD)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솔지, 하승태 (2016). 국가재난상황 시 성별에 따른 대통령 관련 뉴스 보도 프레임 연구: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사태의 비교분석.
- 차배근 (1980).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세영사. pp. 276-277.
- 최진봉, 유찬열 (2005). 뉴욕타임즈와 로스앤젤레스타임즈에 보도된 한국과 일본의국가이미지 분석.[동서언론], 9호, 407-436.
- 최윤희 (1996). 『인터컬처럴 PR』. 책과길.
- 한병섭 (2015). 중국에 대한 우호적 국가이미지 평가 영향요인 분석: 국가 간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4집 1호].
- 황상재, 최진우, 조용현 (2012). 유럽의 언론과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유럽연구], 제30권 3호, 141~181.
- 한충민 (1998). “외국 브랜드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자동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13(1)],

pp.27-42.

<全国报刊内容汇编> (1997). (北京: 北京市邮政管理局), p.1.

王晓玲. 董向荣 (2010). 韩国人心中的中国国家形象-基于问卷调查和深度访谈的实证研究. 《当代亚太》2010年第2期.

Bentler, P. M. (1995),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Multivariate Software Inc., Los Angeles, CA.

Boulding, K. E. (1956). The Image, Ann Arbor, Michigan(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hange, Byeng-Hee., Lee, Yang-Hwan., Nam, Sang-Hyun. and Kim,

Bo-Mi (2009).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the Effect of Media Products on Country Image: South Korea Images in Six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heraton Boston.

Diana Petkova (2006). National images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Southeast Eoupe. Journal of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Social Change, 3(2), 135-155.

Deutsch, Karl W./ Merritt, Richard L. (1965).”Effects of event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mages.” Kelman,Herbert .(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o-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pp.132-187.

Dowling, G. R. (1986.). Managing your corporate imag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15(2).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 Journal of Comunication, 41, 6-27.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 43(4), 51-58.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 Reigroske & N. Anderson (1959-1960). " National Images of Foreign Contacts," *Public Opinion Quarterly*. p.528.
- Edward J. Mayo & Lance P. Jarvis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Effective Marketing and Selling of Travel Services*,1981, pp.41-63.
- Goodman, R.S. (1999). *Prestige press coverage of US-China policy during the Cold War's collapse and Post-Cold War Years*. *Gazette*,61, 391-410.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amson. W. A. & Modif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un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95, 1-37.
- Goffman, I.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organization of experience*.
- Hana, A. & S. Maine (1984). "Media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Toward and Interg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Vol. 11, No. 3. pp.323-340.
- Han, p. (1991).*The Rise of the Brand State*. Foreign Affairs.
- Holsti, O.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Addison-wesley.
- Hall,C.P (1986).“National images: A Conceptual Assessment”, Paper Presented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Boston).
- Iyenge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er, S .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Jaffe, E. D., & Nebenzahl, I. D. (1993). Global promotion fo country image. In.N. Papadopoulos, & L. A. Heslop(Eds.), *Product-country images: Impact and role in international marketing* (pp. 433-453).
- Janis, I.L./Smith, M.B. (1965). "Effects of education and persuasion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mage." Kelman, Herbert C. (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o-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 Kelman, H. C. (1965). *International behavior*. New York, N: Holt, Rinehart, and Winston.
- Kunzik, M. (1990). *Images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ippman, W. (1992). *Public opinion*. New York: Free Press.
- Leo Crepsi (1961). " Some Observations on the Concept of Image." *Public Opinion Quarterly*, Spring, 1961, p.116.
- Lipmann, W (1992). *Public Opinion* (London: Free Press).
- Moffitt, M. A. (1994). A Cultural Studies Perspective Toward Understanding Corporate Images: A Case Study of State Farm Insuranc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6(1),41-66.
- Todd, G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Wilhoit, G.C.& Weaver,D. (1983). *Foreign news coverage in two U.S.*

- wire services: An update. *Journal of Communication*, 33(2),132-48.
- Nye, J. (2004). *Soft power*. Cambridge, MA.: PublicAffairs.
- Papadopoulos, N., & Heslop, L. A. (1986). Travel as a correlate of product and country images. In T. E. Muller(ed.), *Marketing*(Vol.7). Whistler, B.C.: Administrative Sciences Association of Canada-Marketing Division.
- Scott, W. A. (1965)."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in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edited by H. C. Kelma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chiffman, Leon G./ Leslie, Lazar K. (1978).*Consumer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ang-chul Lee (1979). "The American Image of Relations with Japan Projected in Three U.S. Dailies," *Gazette*, No.1. p31.
- Moffitt, M. (1994). A Cultural Studies Perspective toward Understanding Corporate Image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6(1), 41~66.
- Donnsbach, Wolfgang. (1988). *Selektive Zuwendung zu Medieninhalten, Forschungsstand und Feldstydie am Beispiel des Selektionsverhältnis von Zeitungselesern, Mainz(unv. Manuskript)*.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The National Images of Korean and
Chinese in Korean and Chinese Newspapers: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Daily Newspapers
Before and After THAAD Arrangement

ZHU JIN

Department of Journalism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d the national image of Korea and China mirrored in Korea and China newspaper before and after the arrangement of THAAD.

To identify the national image of Korea and China in the Korean and Chinese press before and after the arrangement of THAAD, this study content analyzed The Hankyoreh ,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Korea progress newspaper and a lot of the publication and The Chosun Ilbo,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Korea conservative newspaper and The People's Daily, which is the official orga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uangming Daily , which is controll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a Democracy Alliance. Besides, category analysis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specific national image of Korea and Chinese.

The period of analysis was one year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and one year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at is from the July 8th, 2015 to

the July 7th, 2016 and from the July 8th, 2016 to the July 8th, 2017. The result showed that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coverage of the Korea press was more than the coverage of the THAAD, the coverage of the Korea press was more than the coverage of the China press.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straight news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and the straight news was becoming more in the Korea press, however, the straight news was becoming less in the Chinese press. As for the paper news, both of two countries, the international paper was frequently used type. Relatively, the economy paper was more in Korea paper and the culture paper was more in China paper.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politics paper and the economy paper was more and the international paper and the culture paper was less in the Korea press, however, the international paper was more and the politics paper and the culture paper was less in China press. About of the source,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Foreign Office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becoming more and the others was becoming less in Korea press, on the other side, the other press was becoming more, the government, the professor, and the expert were becoming less in the China press. As for the source type,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anonymity source was becoming less and the real name source was becoming more in the Korea press, however, they were opposite in the Chinese press. As for the source of news, after the arrangement fo the THAAD, the cover news was becoming more and the reader submission was less in the Korea press, however, it was on the opposite in the China press. The portrait in the news, both of two country, the president was more in the press, but the society figure and the public official was more in Korea press and the ordinary person, the youth and the army were more in the China

press. Both of the two country, the male portrait was more than the female portrait. The source of the portrait almost was from the foreign press in the two country's press, and the source of the portrait was more diversity than China press. As for the subject, after the arrangement fo the THAAD, the diplomacy and the national defense were becoming more and the economy were becoming less in Korea press, on the other side, the politics was becoming more and the economy and the culture were becoming less in China press.

As for the reporting attitude,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THAAD, the positive news was becoming a little bit less and the negative news was becoming a little bit more and the neutral news was a little bit more in Korea press, however, the positive news was becoming much less, the negative news was becoming much more and the neutral news was a little bit more in China press. So, after the international affai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ss to adjust the strategy of the national images.

코딩지

1. 코딩번호 ()

2. 신문명:

- ①한겨레 ②조선일보 ③인민일보 ④광명일보

3.기사의 유형:

①스트레이트: 정부나 기관 등이 발표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갖고 해석 없이 보도한 기사 (보도자료,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

기사의 3분의 2이상이 사실적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기사

②해설.분석기사: 어떤 사건이 일어난 원인, 동기, 중요성, 배경, 전만 등을 알기 쉽도록 설명식으로 풀어쓰는 기사(사건에 전망과 의미부여를 하다 보니 기자의 의견이나 시각이 들어 갈수 밖에 없음).

③기획/특집: 기획 특집기사 및 기획 연재물, 탐방기사(시리즈는 기획기사로 간주), 신문기사가 스스로 뉴스를 발굴 집중 보도함으로서 뉴스 가치를 부여한 기사

④사설/칼럼: (내부필진, 신문이나 잡지에서 기사 끝에 그 기사를 쓴 기자나 필자 이름을 밝히는 선)에 기자 혹은 부장 등 명칭이 붙은 기사

⑤인터뷰/대담기사: 인터뷰 중심의 기사

⑥독자투고/기고: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 기고한 글을 말함

⑦기타

4.정보원:

①대통령/주석, 청와대

②국방부

③외교부

④기타 중앙정부(부처) (외의 제외하는 것)

⑤ 위안부 피해자

⑥교수 /학자/ 박사/ 연구원

⑦전문가: 감독, 연예인, 부장, 변호사, 운동선수, 의사, 어른 부약에서 잘하는

사람

⑧타 언론사: 신문, 방송, 외국 통신사, 외국 신문

⑨자료: 통계, 합의, 문서, 책 등

⑩국회: 국회의원/ 정치인

⑪시민사회단체(환경운동 연합 등 비정부 조직이면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

⑫사회. 이익단체(체육단체, 농수축산업, 노동단체, 문화예술, 중소기업지원센터,

장애인단체)

⑬일반인: 네티즈, 시민의 직업을 말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으로 한다.

⑭은행 기관

⑮ 법원/검찰/경찰

⑯ 학생

⑰ 군인

⑱ 기타

5. 취재원 유형:

① 실명 취재원: 기사에 취재원의 이름과 직책 등이 분명히 밝혀지는 실명 개인 취재원이나 보도자료, 성명서, 법정 판결문등을 말하는 간접 취재원이나 공공 단체나 기업 등을 말하는 단체 취재원

② 익명 취재원: 한 참석자 등과 같이 취재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나 ‘가명’이라고 적은 것이나 성명이 밝혀져 있지 않은 복수의 인물 취재원을 말하는 불특정 다수 취재원

6. 지면:

① 종합/정치면(당의 정책, 공문 등 게재)

② 경제면

③ 사회면

④ 국제면

⑤ 문화면/연예

⑥ 스포츠

⑦오피니언(여론/사설)

⑧기타

7.주제:

①정치/ 각종 시위: 정부와 관련된 활동이나 정책; 정치인 및 그들의 활동

;부정부패; 정당대회; 국가방문;선거; 승진이나 퇴직 등 인사 변동; 사드 배치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시위; 정치 체제; 민주화;

②외교: 대외의 관계; 외교적 회의; 양토분쟁; 국제 교류; 위안부 등

③경제: 거래량이나 물건 종류 등 외국과의 무역;무역 협의 관계;농수축산업

현황; 유통 현황; 경제성장률;수준이 세계에서 몇 위; 외환보유액; 환율;

금리,비트코인 등 금융; 증시; 위안화; 전기차,IT,전자상품,화장품,친환경 등 기업

경영 및 그의 상품 소개 ; 소비현황; 투자 수매; 인터넷 쇼핑;집값;기업 인수;

인터넷 스타 경제; 창업 경제 등

④문화/연예/ 오락/종교: 전통 역사/ 민속 문화; 한류의 관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프로그램; 연예인; 문화 축제 , 교류 ;무형문화 유산; 도자기 등 예술품;

음식 문화 등

⑤국방: 국방 건설; 군사 훈련; 국가 안보 및 사드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무기;

철준; 진군 등 군사 활동; 군인;북한 문제 등

⑥사회/범죄사건/재난/사고/: 생방송, 관군제 등 인간의 흥미; 자연재해; 텐진

폭발이나 교통 등 큰 사고;실종이나 중요한 인물 등 경찰 및 검찰의 수사;

판결의 범죄사건; 시기; 장기 기증; 민족간의 충돌;병원 의환 분쟁 등

⑦보건/복지/건강 : 병원; 노인원; 의료보험;취직 ;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봉사활동; 저출산율; 노인화 ; 결혼문제; 유서우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직장생활; 등

⑧관광/여가/여행 : 관광객수/관광동향의 상황; 여행지의 홍보; 관광보조물,

서비스등

⑨환경: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 기후 등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 문제

; 쓰레기 문제

⑩과학/ 교육 : 통신, 의료 과학 기술 발전개발; 우주 탐구나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박람회; 학술 활동; 유치원 ,초 중등 , 고등 및 대학 교육 등

교육부 관련 기관; 노벨상

⑪스포츠: 체육 경기 대회; 운동 선수; 감독 등

⑫기타: 각 분야의 대충 내용

8.보도 태도 :

①긍정적 (3점): 기사논조가 긍정적이거나 지지하는 경우

②중립적 (2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동시에 보도하는 등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할 경우

③부정적 (1점): 기사논조가 부정적이거나 비판하는 경우

9.뉴스의 출처:

- ① 자체취재/ 자사특파원(기자나 특파원, 통신원이 쓴 기사)
- ② 외국통신사 (외국방송사 이름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 AP, UPI ,Reuter)
- ③ 국내통신사(연합통신 등)
- ④ 독자투고(학자, 전문가 혹은 독자가 투고한 기사)
- ⑤ 기타(그 외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10. 인물사진:

- ① 대통령
- ② 주요 공직자(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주지사 등)
- ③ 주요 사회 인사/ 기업인/ 연예인 등
- ④ 사건중심인물(범인)
- ⑤ 일반인(성인)
- ⑥ 청소년/학생
- ⑦ 군인
- ⑧ 기타

11.사진 출처:

①자사 기자

②외신.타 매체

③독자제공

④기타 (출처가 불분명)

12.인물사진의 성별:

①남

②여

③혼합

④기타

13. 시기:

①2015년7월8일-2016년 7월7일

②2016년7월8일-2017년 7월 8일